

한국무교회 신년 성서집회

일시 : 2023년 1월 8일(일) 10:00-17:00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1953년 8월 성서집회, 계룡산에서)

<목 차>

성서, 단테의 신곡, 일상(진영선)	2
요한복음 공부 : 서론 The Gospel of John(손문일)	7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배은선)	22
창세기 공부(창 1:1-5) - 루터전집(최길성)	28
그리스도 자녀에 합당한 의로운 삶에 대해(배지현)	46
예수 탄생 그 후(김철웅)	56

강의 일정표

일자	구분	강사
1.8 (일) 오전	10:00-10:40	진영선(대방동 모임, 신곡 연구자)
	10:50-11:30	손문일 (부산 모임, 부산대교수)
	11:40-12:20	배은선 (철도박물관장)
1.8 (일) 오후	12:20-13:20	점심시간 및 코이노니아
	13:20-13:30	한국성서신우회 총회(한만하)
	13:30-14:10	최길성(강원도 고등학교 교사)
	14:20-15:00	배지현 (풀무모임, 풀무고등학교 교사)
	15:10-15:50	김철웅 (오류동 모임, 김교신기념사업회)
	16:00-17:00	자유발언(5-10분씩)

강사님께서서는 반드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서, 단테의 신곡, 일상

진 영 선

ㄱ) 세계 최고 문학인 성서를 단테의 신곡, 일상과 연관해 알릴 수 있을까?
그리해야만 한다. 오늘은 이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올리기로 한다.
왜냐하면 성서 인물들의 일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듣고 읽고 배우고 느낀 성령의 감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또한 믿는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범대로 살고자 믿음의 공동체 모임의 하루 일상을 이처럼 갖기도 한다.

구약성서란, 구약시대에 세상을 살던, 주요한 인물과 생애의 주요 사건들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성령의 감화로 선택된 저자들이 하나님에 관한 기록을 썼다. 구약의 저자들이 각자의 시대를 달리하지만 반복하듯, 그들이 살던 일상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성서역사 사건을 기록했다.

그 주제는 죽을 운명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그분 가르침을 믿고 진실히 살면 죽어도 영원히 살도록 구원해주신다는 위업이다.

신약성서는 어떠한가.

하나님 약속대로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생생한 기록이다. 인류의 생명을 구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짧은 생애 일상에 일어났던 사건들 기록이다. 그리하여 인류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는 기록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야 주께서 오실 재림의 날에, 죽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어 하늘로 올리시고 환희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 신약성서의 주요 저자들의 생애가 이 사실을 전하다 순교 당했다. 기독교는 전도에 힘쓰기 마련이다.

신곡을 써서 전도한 단테가 있다. 단테가 신곡에 올린 성서의 주요 인물들이 그 당시 세태를 반영하며 전도하기 때문이다. 신곡이 르네상스에 주요 영향을 끼쳤다. 하나님의 세계를 그 당시 세태에 알맞고 바르게 그렸기 때문이다. 단테가 희극이라고 책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서의 주요한 인물들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당시 유명 인사들과 살살이 비교한 설득력이 대단해서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닌 속마음을 흔드는 강한 힘이 짙어서다.

ㄴ) 1969.11 결혼, 1973년 2월말 주일, 종로집회 참석, 노평구 선생님을 처음 뵈었다. '성서연구'지를 통해 선생님께서 알리는 진실한 기독교자들의 삶과 죽음에 감동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잡지의 특징은 출판 광고다. 무슨 책을 내니까 독자들에게서 그 책을 미리 주문하고 책값부터 보내고 널리 알리라는 광고다. 이렇게 당당한 선생님의 자신감을 받아들여 무조건 그 책들을 주문하고 읽었다. 주로 김교신 관련 책들이라 김 선생께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1980년 초에 김교신의 '성서조선' 영인본 두 질이 집에 도착했다. 즉시 한 질을 원주 1군사령

부 교회에 드렸다. 예배당엘 처음 다니며 사병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한다는 사실에 감격해서다. 젊은 그들이 김교신 선생님을 진정으로 읽어, 그분의 삶을 알고 영향을 받기 바랐다. 그 나이의 자신은 종교와 인생에 관심 없는 철부지로 지낸 반성이었다.

또한 선생께서 잡지에 소개하신, 녹색 장정의 The New English Bible을 서울서 사 왔다. 몇 년 후엔 그 성서 개정판 The Revised English Bible도 구했다. 이 책들을 바라만보다 읽기 시작했다. 그때 '88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어 전국에 영어 열풍이 몰아쳤다.

ㄷ) 2000년 연말에 흥동 농업회관 겨울집회에 참석, '단테의 신곡 독해' 공부를 듣고, 2001년 봄부터 다녔다. 어린 대학생들과 신곡을 영어로 읽으며 그저 헤맸다. 그런데 그해 초여름에는 유 선생님 성서 창간지에 반드시 성서공부를 기고하자고 미아집회에서 강조했다. 최병인, 박찬운, 김영웅 선생께서 예배 후 광고시간에 심히 매달 압박 독촉했다. 이래서 '단테의 신곡독후감' 1회가 곡절 끝에 2002.1 '성경말씀' 창간호에 실렸다.

실은 성서에 관해, 중2 여름방학 마지막 국어시간에 처음 들었다(1958년). 그해 봄에 갓 부임한 이정숙 국어선생님이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국어, 국문법, 한문을 가르치고 담임을 두 번 하셨다. 그때 여중 2년생들에게 성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이 읽히고, 잘 팔리는 최고 책이라 알려주셨다. 성서가 신구약이니 구약에서 율기, 신약에서 마태복음을 읽어들 보라고. 숙제가 아니다 하셨다. 사춘기는 거꾸로 가니, '숙제 아님, 읽어야지.' 마침 집에 주먹 크기의 진남색 장정에 진분홍이 칠해진 성서가 있었다. 그래서 펼쳐든 율기는 2장 이후엔 도대체 뭐래? 하며, 몇 번을 읽으려 애쓰다 접었다. 다음엔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유명하셨지만 실제로 성서로 읽기는 처음이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소설은 되 읽는 버릇이 있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져 몇 날 며칠 조용히 울었다. 누구에게도 이를 물어볼 수도, 물어볼 어른도 계시지 않았고, 선생님은 너무 어려웠다.

ㄹ) 2005년 8월말 대방집회에서 '단테의 신곡'에 관해 처음 말하기 시작했다.

그 국어선생님이 우등생들만 모인 연극반과 방송반 학생들을 지도하셨다. 한 번도 그런데 들지 못하고 빈약한 학교 도서실만 드나들었다. 좋은 영화 보시면 이야기를 정말 잘해주시던 선생님 이셨다. 그분께서 동서양의 고전소설을 많이 소개해 주셨다. 이를 읽는 좋은 독자이자, 연극, 영화, 음악, 미술의 좋은 관객으로 크라고 알려주신 셈이다. 단테의 신곡에 관해선 듣지를 못했다.

유행소설인 베스트셀러보다 고전읽기를 적극 권한 이유가, 고전으로 수백 년 살아남으려면 작가의 좋은 정신이 그 작품에 베어서라는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다. 성서가 세계 최고문학임을 중2 때 국어선생님이 가르쳐주셨으나, 이를 깨닫기에 평생이 걸린 셈이다.

문학의 한 가지에 해학과 풍자와 비유가 한몫한다. 이는 예술의 주요 덕목이다. 이로써 세상

사는 재미와 삶의 활력을 얻기 때문이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선한 예술가들이 이를 감당한다. 사람들을 바르게 하는 근거를 좋은 문학작품이 먼저 제시해준다. 다음에 미술가들이 나오고 음악이 온다고 한다. 과학은 그 다음이라 한다.

ㄴ) 김교신 ‘성서조선 영인본’에서 작은 글씨의 한자투성이 일기만을 어렵게 찾아 읽었다. 노 선생께서 이를 풀어서 다시 주제별로 읽기 쉽게 김 선생 전집을 내셨다. 영인본은 무겁고 여러분의 글이 섞여, 계속 읽기가 버거웠다. 성서도 잘 모를 때라 더 심했다. 자그마한 김 선생 전집이 읽기에 좋았다.

그분의 일상이 적힌 일기가 어떤 전도사의 생애보다 고품격의 삶을 보여준다.

그리고 해방 직전에 그리도 갑자기 떠나가시다니.

몇 친구에게 이 전집을 선물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책을 잘 읽었는지 알 수 없다. 김 선생께서 훌륭하시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다. 지금이야 참 어려운 선물이 책 선물임을 깨닫는다.

한번은 대학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동창 중, 한 친구에게 문의한 일이 있다.

‘기독교 문학서적에는 무슨 책이 있는가?’ 선생님들께 좀 여쭙어서 가르쳐달라고. 1980년대 중반쯤이다. 며칠 후 학교 도서관까지 오랜만에 찾아가 들은 친구의 대답인즉, ‘애, 영선아, 세계고전문학전집이 대부분 기독교문학이라신다.’

언젠가 노 선생님께서 톨스토이는 비기독교 성향의 작가이고 도스토예프스키가 기독교를 작품에 반영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사실에만 유념했다. 그 이유는 그 두 작가의 작품들을 좋아했고 러시아 작가들을 참 좋아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대문호들의 나라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좋아해서 읽기는 물론, 세계의 유명 여배우들 세 명이 각기 다르게 주연한 영화들을 보면서 슬퍼했다.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를.

이런 감정이 셰익스피어의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오셀로 등과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까지 계속 갔다. 고전소설 속의 남녀주인공들의 그런 암담한 죽음들이 참고 견디기 힘들었다. 슬픔의 골이 깊었으나, 누구에게 물어볼 일도 아니었다. 그런 길을 택하는 사람들 인생 행로를 수십 년 고심한 셈이다.

ㄴ) 그런데 이젠 이를 밝혀내서 스스로 기쁘다.

성서가 보는 원점의 시선으로 이를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테의 신곡은 원 제목대로 읽어야 한다. 단테의 일생에서 보카치오가 이를 ‘단테의 일생’ 9장부터 12장까지 잘 설명하고 있어 더는 부연할 필요가 없다.

특히 ‘단테의 연옥’ 1-2곡이 이를 밝히 환히 드러낸다. 이러한 단테의 신곡 해석에 가장 적극 호응하여 주신 유 희세 선생님께 감사한다. ‘단테의 신곡읽기 3’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했고, 이를 집회에서 공부하는 동안 경청하시고 의문시에는 반드시 전화를 주셨다.

‘신곡’을 한두 번 읽어 알기 어렵다고들 하나, 못할 일이 있는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화끈하고 재미나게 안내해주는 성서안내서가 ‘신곡’ 외에 또 있는가. 단테가 원래 쓴 이름인 ‘희극’이 대변하듯, 그야말로 일품의 최고 명작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힘이 약동한다.

위에 열거한 세계 유명작가들의 소위 명작이라는 작품들 속에 깃든 정신에는, 성서가 내뿜는 그리스도 정신이 없다. 그저 단지 손쉽게 빠지기 쉬운 사람들의 어두운 면인 인간 내면의 감정만 고조할 따름이다. 심약한 사람들이 슬픈 감정에 휩싸이기 더욱 쉽다. 소위 사회의 약자들인 힘든 경지의 사람들이 침잠하기 마련이다. 각종 비극의 주인공들이 마음 불안한 독자들에게 어두운 면을 강조하여 더욱 상심하게 한다.

고로 이런 작가들을 비기독교 성향의 작가들이라 칭할 수 있다. 그런 선하지 아니한 작품에는 하나님 성령의 생명력이 아닌 어둠의 힘만 있다.

ㅅ) 단테가 연옥을 얼마나 대단한 솜씨의 풍자로 그렸는가.

지금의 혼란한 기독교 세상이 다시 1400년대 중반처럼 돌아가면 좋겠다. 단테의 ‘희극’을 바르게 풍자로 읽어 이를 바르게 이해하던, 그 시절처럼 말이다. 그러면 그때보다 훨씬 더 밝은 세상이 오리라, 확신한다. 그 느리던 중세와 달리 우린 스마트한 첨단 속도의 시대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인간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밝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단테가 ‘신곡’에서 기독교 정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성서가 희귀한 시대에 전도의 일환으로 많은 세상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

좋은 예술 작품 속에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힘이 있다. 주인공이 죽어 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작품을 보거나 듣거나 읽은 독자들이 그 삶의 자세에 공감하고 우러르게 이끈다. 삶이 힘들어도 잘 견디고 힘껏 살게 하는 생명력이 넘친다.

많은 문학가 중에는 작품의 주인공들처럼 힘든 삶을 살아간 작가가 많다. 생전에 빛을 받기보다 이들은 사후에 작품을 통해 알려진다. 그들의 신앙이 작품에 아름답게 스며서 삶의 향기를 뿜어내기 때문이다.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위인전기들이 이를 대변해주어 알 수 있다.

세계역사에 많은 기독교자가 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는 물론 세계 역사에 역사하셨고, 지금도 이끄신다. 문학의 역사 속에 문학가들의 좋고 나쁜 작품들이 기록에 남는다. 우리가 이를 가려내 읽는 힘을 길러야 한다.

ㅇ) 구약성서는 하나님의 역사서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과정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의 역사를

알리는 기록이 성서니, 그분에 관한 역사라 할 수 있다.

역사공부란 역사의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 발전, 퇴보와 역행에 관해 주요점들을 배운다. 소위 반면교사 노릇을 역사공부가 알려준다.

성서에서 구약 역사서가 사무엘서부터 느헤미야서까지 343쪽 차지한다.

(REB.성서 참고; 모세5경-룻기406, 에스더-아가서217, 이사야-다니엘87, 호세아-말라기 74쪽. 부연; 구약; 828, 신약; 236, 외경; 205쪽.)

‘신곡읽기 4권’이 ‘히브리서 읽기’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5년간 모세5경,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를 히브리서에 반영해야 했다. 히브리서 공부는 단테의 연옥 마지막에 나온 지상천국의 행렬 속 단테의 암시 때문에 시작해야만 했다. 히브리서 읽기는 신학자들처럼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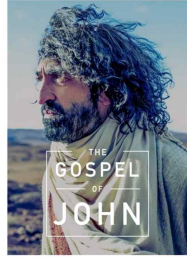
히브리서 11장을 보려면, 창세기를 거듭 읽어야 이해가 가능해진다. 모세는 기원전 1500년대, 사도 바울은 기원 1세기 인물이다. 성서역사 선상에, 두 인물이 1500년의 차이가 나지만 나란히 서 있다.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선민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이 모세와 바울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이후에 살아온 기독교자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밝히는 사명에 동참해야 한다. 하나님 역사는 영원히 진행 중일 터이니 우리도 그 일직선상에 놓여있고 싶지 아니한가.

기독교자의 사명을 사도 바울이 그의 많은 서한에서 밝힌다. 바울 사도의 생전의 일상이 어떠했는가.

ㅈ)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들었다.

이의 원동력인 ‘단테의 신곡’을 처음처럼 해석하면 가능해진다. 새로운 종교개혁 신품이 이 자리에 모인 소집단에서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단테의 연옥’이 기독교자의 바람직한 일상을 오롯이 깨우치듯 알려주기 때문이다. (2022.12.30)

2023 신년 한국무교회 전국집회



요한복음 공부 : 서론 The Gospel of John : The Prologue

2022년 1월 8일 일요일
손문일 (부산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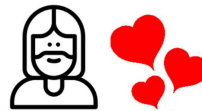


The Four Gosp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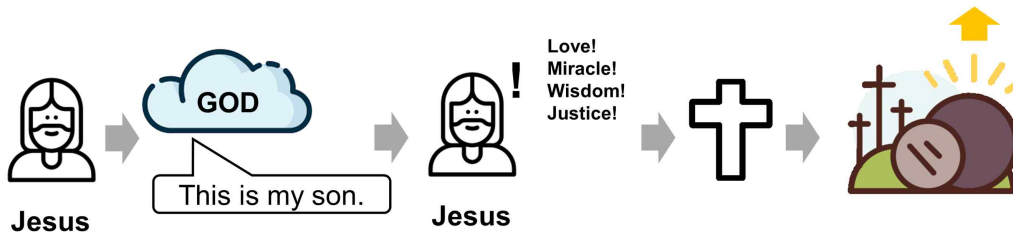
What is a 'gospel'?



Story of



What is 'THE gospel'?





The Four Gospel



	Mathew 마태복음	Mark 마가복음	Luke 누가복음	John 요한복음
Jesus	King 왕	Suffering servant 종	Son of Man 사람의 아들	Jesus=God
대상	유대인	로마인	그리스인	모든 사람
기록	AD50-60	AD50-60	AD60-62	AD66-98
방식	예언적 계시적	실제적 현실적	역사적 사실적	영적



Synoptic Gospel/공관(共觀)복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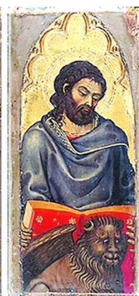
The Four Gospel

사람
마태

사자
마가

황소
누가

독수리
요한



사람
마태

#혈통 #계보 #인간으로서 #그리스도 #탄생

사자
마가

#세례요한 #광야 #외침 #선포 #복음전파 #부활

황소
누가

#사제 #사가랴 #희생 #희생제물

독수리
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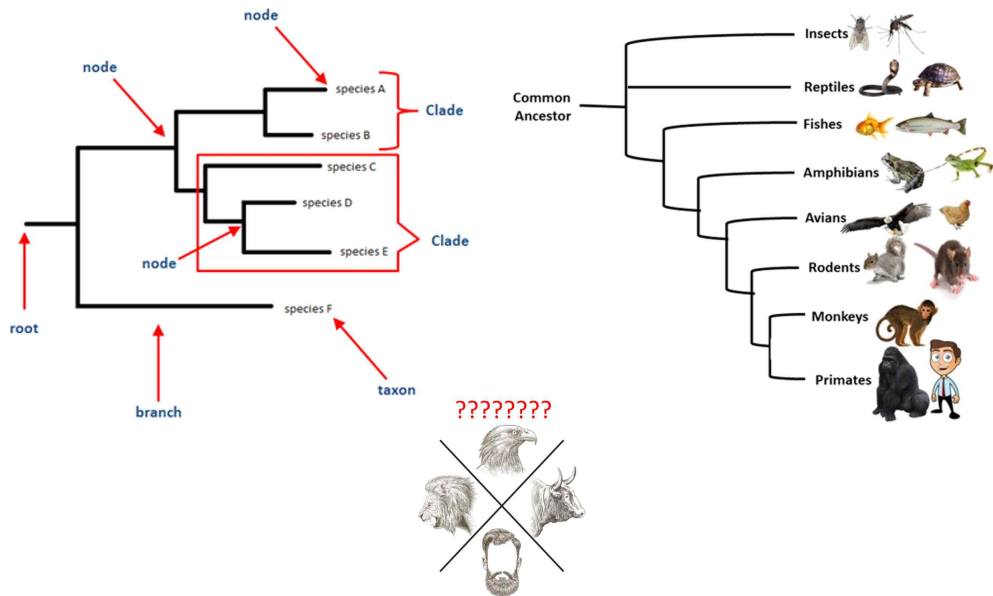
#로고스 #하늘로부터 #지상방문 #승천





The Four Gospel

Phylogenetic tree (계통수) : 계통분류학



The Four Gospel



St. John

독수리
요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산에 이르다 (출19:1-4)

-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 2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 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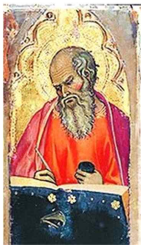
이스라엘을 구한 상징적 동물

: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 하나님을 대리한 심판자
→ 하나님의 탁월함

#로고스 #하늘로부터 #지상방문 #승천



The Fourth Gospel - Authorship



사도 요한 (John the Apostle)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막1:19-20)

- 수산업 종사자 (추정)
- 12사도 중 최연소자
- 갈릴리호수 근처 벳새다(Bethesda, Bethaida)
- John the Apostle = John the Evangelist = John the Patmos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연로하였을 때 에베소에서 쓴 책이” 라는 오래된 교회의 전승

“그 후에 주의 제자 요한은 주님의 품에 기대었던 자로서, 아시아의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복음서를 출판했다.”

(Irenaeus, Haer. 3.1.1)



The Fourth Gospel - Authorship



1. 유대인

메시아사상
유대인:사마리아인 구분
유대인의 혼례,상례 상세히 기술
유대인의 풍습 상세히 기술



2. 팔레스타인 출신

정확한 지리적 기술 (거리조차..)
ex)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진~
예루살렘에 대하여 소상히 기술
시내지리도 잘 알고 있음

3. 목격자

인물,시간, 장소에 대한 구체적 기술
가나의 혼인잔치 중
‘두 세 통 드는 물항아리가 여섯통..’
<요2:6>

3D/4D? 적 기술방식
“향유냄새가...”

<요12:3>

4. 제자

물리적 거리가 가까웠던 사람
수난과 부활에 대해 상세히 기술
중요한 순간에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기술
예수님의 감정도 기술
<요11:33, 13:21>

#명시안됨 #하늘로부터 #지상방문 #승천



The Fourth Gospel - Authorship



성서 외(外)	성서 내(內) -요한복음
이레니우스 “요한이 에베소에서 씀...” <이단논박>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13:23>
AD~135 Justin Matyr (유스티누스) “그리스도의 사도 가운데 하나인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렀다.” <the Dialogue with Trypho the Jew>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의 옆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님, 주님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던 제자 <요21:20>
루시우스(Leucius Charinus) “사도요한의 에베소에서의 사역” <요한행적(150년경 기록)>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글로 기록한 사람 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21:24>

#그제자 #명시안됨 #아직도 #설왕설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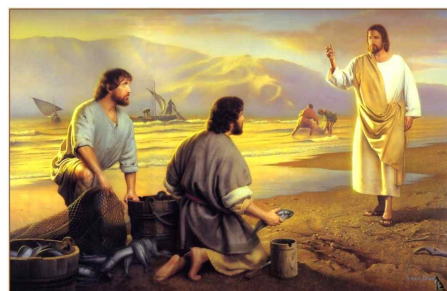
The Fourth Gospel - Authorship



무명(無名)화 혹은 3인칭화...

시문	베드로(게바-요 1:42), 안드레의 형 (마 10:2; 막 3:16; 눅 6:14; 행 1:13)	형제
안드레	시문의 동생 (마 10:2; 막 3:16; 눅 6:14; 행 1:13)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마 10:2; 막 3:16; 눅 6:14; 행 1:13)	형제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마 10:2; 막 3:16; 눅 6:14; 행 1:13)	형제
빌립	(마 10:2; 막 3:16; 눅 6:14; 행 1:13)	
바돌로매	(마 10:2; 막 3:16; 눅 6:14; 행 1:13)	
도마	(마 10:2; 막 3:16; 눅 6:14; 행 1:13)	
마태	알패오의 아들 레위(막 2:14), 세리(세관) (마 10:2; 막 3:16; 눅 6:14; 행 1:13)	
야고보	알패오의 아들 (마 10:2; 막 3:16; 눅 6:14; 행 1:13)	
다대오	유다, 야고보의 아들 (마 10:2; 막 3:16; 눅 6:14; 행 1:13)	
시몬	가나 사람, 켈롯(Zealot, 열심당) (마 10:2; 막 3:16; 눅 6:14; 행 1:13)	
유다	가롯 사람, 예수님을 판 제자 (마 10:2; 막 3:16; 눅 6:14; 행 1:13)	

????????????????????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가 없음

#무명 #noname #자신만의세계관



The Fourth Gospel - Authorship



무명(無名)화 혹은 3인칭화...

????????????????????



또 다른 제자 (2)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대제사장의 딸 (요18:15-16) : 대제사장과 아는사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감	최후의 만찬 (요13:23-26) 십자가 곁에서 (요19:25-27)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길 (요20:2)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요21:7)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21:20-24) 마무리 (요21:25)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길 (요20:3) : 먼저도착/들어가가지 않음	



최선근 교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란 표현은 저자의 우위를 과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겸손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다. 확실히,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감명 깊게 느꼈을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곁에서 주님으로부터 어머니의 의탁을 받았을 때와 주님의 부활 후에 이 칭호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다. (독특한 고백방법)

#3인칭화 #자신의타자화? #주님에대한사랑 #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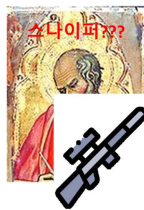


The Fourth Gospel – Target



1. 세례요한의 추종자

서론부터 선을 그음 (1:6)
세례요한의 역할 기술 (1:31, 3:29)
"예수님에 대한 증인!"
→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



2. 유대인(불신)

"크리스토스 (메시아)" 多
"메시아" 직접적 사용 및 강조
"기다리던 그 분이 왔다!"

3. 이단세력

vs 영지주의/케린티아니즘
→ 육체로 오신 Jesus (요일4:2-3)
vs 가현설(Docetism)
→ 말씀이 육신이 되어.. (1:14)
등등 다양한 이단에 맞서기 위해..



Rudolf Schnackenburg
가톨릭신학자(독일)

제4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이러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해석하는 것은... 좀...
핵심메세지를 놓칠 수 있다...

#johnthesniper? #세례요한파 #불신자유태인 #영지주의 #가현설



The Fourth Gospel – the Core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면



예수 =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이방인들 포함)



모든 사람을 위한
세상의 빛으로 오심
(1:9)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20:31)

#예수=그리스도 #믿음 #생명



Jesus



Believing



Life

GOOD NEWS



The Fourth Gospel – the Core



나는 _____ 다.

Jesus



길



진리



생명



샘물



생명의떡



선한목자



부활



포도나무

γ ε μι : Ego eimi →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 ”

→ 예수님의 신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그리스도



The Fourth Gospel – Contents



The Prologue 1:1-18

The Book of Sign 1:19-12:50



The Book of Glory 13:1-20:31

The Epilogue 21:1-25



시문학(詩文學)의 형태



“요한복음1:1-18은 유명한 로고스(Logos)론으로 된 전체의 서문이다. 즉, 로고스에 대한 찬미라고 볼 수 있는, 산문이라고 보기도 일종의 시(詩)다. 시란 결국 심오한 사상(思想)을 내포하는 문자이다. 그러므로 사상이 없는 곳에 위대한 시가 있을 수 없다.”

#요한복음서문 #시 #문학 #로고스 #심오함



The Fourth Gospel – the Pro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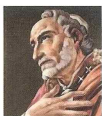


The Prologue

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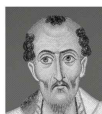
시문학(詩文學)의 형태



어거스틴
AD354~450?

“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다.”

: 인간의 머리로의 사색이나 명상으로 얻어낸 결론이 아님
“성령의 계시와 영감으로 믿게 된 사도요한의 신앙의 확신“



크리소스톰
AD349~407

요한복음 서두의 하늘의 천상적 비행...독수리?



“ 기독교신앙의 정수(精髓)”

: 사도요한이 복음서(본문)를 다 쓴 후에
모든 내용을 총괄적으로 함축하여 기록



???
AD1982~

→ 아름다운 미사여구는 없지만, 기독교의 정수가 간결하게,
탄탄한 구조로, 매우 단정적인 어조로 기술됨

#요한복음서문 #시 #문학 #능력밖 #정수



The Fourth Gospel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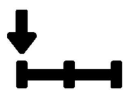


Ἐ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 καὶ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καὶ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SBL Greek New Testament 2010>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개역개정>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KJV>



ρχ
태초에
beginning



λόγος
말씀
The Word



ἦν
계셨으니
w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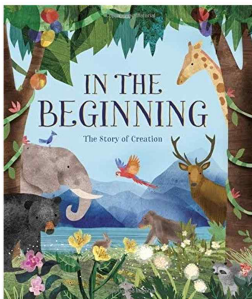


πρὸς
함께
With

#태초에 #말씀 #로고스 #계셨음 #함께



In the beginning



창 1:1 תְּחִלָּ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1:1 Ἐν ἀρχῇ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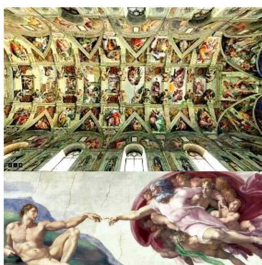
요일 1:1 ρχ ς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창세기1장 vs 요한복음 1장 → 구조적 유사성 존재**

: 창세기 = 요한복음의 힌트

사도요한이 창세기를 떠올리며 "새로운 창세기" 저술

→ **엄연히 다른 이야기!**



천지창조 by 미켈란젤로

창세기 1:1 "태초에" = 시간의 시작

→ 하나님의 우주창조 행동의 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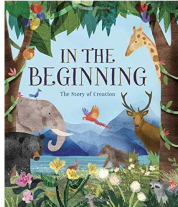
????????



#태초에 #창세기 #요한복음 #유사구조
#다름의미 #시간의시작 #어렵다ππ



In the beginning



요 1:1 Ἐν ἀρχῇ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일 1:1 ρχ ς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시간의 시작 이전”
=영원(永遠) 전(前)

예수님의 기도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에베소서의 첫인사(엡1:4)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 천지가 창조 되기 전 부터... <공동번역본>

#태초에 #천지창조전 #영원전

출발 전 준비중

??????????????



The Word (logos)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logos



라틴어
ser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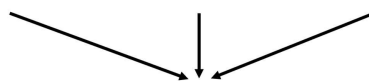
영어권
(서구)
The Word



한국어
“말씀”



사상의 표현=언어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
chat, (common) language,
Dialogue, report, conver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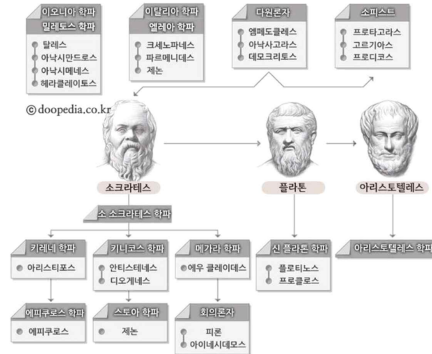


The Word (logos)



아테네학당 by 라파엘로

그리스철학 계통도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에게 로고스란?

1. 로고스의 씨가 인간의 영혼안에 존재
2. 로고스를 통한 우주의 이해
3. 로고스의 이치를 터득한 지식의 습득

→ 언어와 인격을 관련하여 로고스를 이해

그리스철학의 구원관

- 로고스 = 계시의 수단
- 로고스 = 구원의 수단



The Word (logos)



다윗의 별

유대사상(구약성서)에 나타난 로고스

창세기, 시편, 잠언, 이사야,....(유대인들의 히브리어성서)

→ **멤라 (memra) : 하나님과 인간의 중개자**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the Lord)

*잠언, (우리가 읽는 성서)

→ 지혜 (hokma) = 말씀 (dabar) (잠8:12, 잠8:22-30)

: 하나님의 창조와 활동의 능력,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

→ **하나님과 구별 되어 인격적 실체로서 의인화 되어 표현됨**
: 언어와 신과의 관계에서 로고스를 이해함

INTERMEDIARIES IN JEWISH THEOLOGY

MEMRA, SHEKINAH, METATRON

GEORGE FOOT MOORE
HARVARD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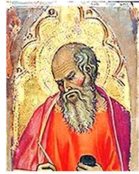
I. MEMRA, SHEKINAH

The Harvard Theological Review (1922)

창조의 수단
계시의 수단
구원의 수단



The Word (logos)



잘들어...이것들아...



Jesus

=



logos

요1:14
요1:19



This is my son.



사상적산물
철학적 사변으로 나온
형이상학적 개념의 로고스!



창조의 수단!
계시의 수단!
구원의 수단!



“요한은 복음서 벽두에서 철학론을 펴려는 것이 아니고, 적의무기를 들어 적을 치는 전법으로 역사적 사실과 신앙적 확신에서 자기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그리스도야 말로 제군(희랍인 유대인)들이 로고스론에서 더듬어 찾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사상이나 철학 체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



Was...계셨으니...



Ἐ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
καὶ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καὶ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과거 / 현재 / 미래 → 동사의 시제



고대 그리스어의 시제			
시간(Time) 시상(Aspect)	과거(Past)	현재(Present)	미래(Future)
미완료(Imperfect)	미완료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
단순발생(Simple)	무정시제 (Aorist)	현재시제, 무정시제 (Aorist)	미래시제, 무정시제 (Aorist)
완료(Perfect)	과거완료 (대과거)	현재 완료시제	미래완료시제

????????????????????????????????????





Was...계셨으니...



고대 그리스어의 시제			
시간(Time) 시상(Aspect)	과거(Past)	현재(Present)	미래(Future)
미완료(Imperfect)	미완료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
단순발생(Simple)	무정시제 (Aorist)	현재시제, 무정시제 (Aorist)	미래시제, 무정시제 (Aorist)
완료(Perfect)	과거완료 (태과거)	현재 완료시제	미래완료시제

Ἐν ἀρχῇ ᾗν ὁ λόγος,
καὶ ὁ λόγος ᾗ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καὶ θεὸς ᾗν ὁ λόγος.

ᾗν

:V-IIA-3S

V : 동사

I : Imperfect (미완료)

I : Indicative (직설법)

3 : 3rd person (3인칭)

S : Singular (단수형)

+창조되기 전부터(태초에)

→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미완료)
존재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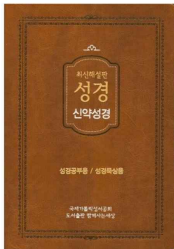
로고스의 선재(先在)성 – Pre-existence)
로고스의 영원성- Eternity

→ 로고스의 신성

*창1:1 창조하시니라 → 과거완료형



πρὸς /함께/with



πρὸς : (문법) 전치사

신약성서 : ~700 번 사용

1. ~로, ~쪽으로, ~에 (이동방향을 나타내며) / to

그들(동방박사)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마2:12)

2. ~쪽으로, ~에 (운동방향을 나타내며) / toward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되...(마14:24)

3. ~와 함께 (상태를 나타내며) / with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막9:19)

4. 그 외 : ~반대하여, (특정기간)이내에, ~가운데서, ~ 가까운

→ πρὸς 라는 헬라어 단어의 표현적 모호성 (여러가지 의미로 이용)
: 헬라어 자체가 동작전치사와 장소전치사간의 구별이 약함



πρὸς /함께/with



De La Potterie
카톨릭 신학자

1:1 vs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



내가 말 했음....

어떠한 관계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πρὸς 를 사용하지 않음
*관계를 위해서는 παρ 를 사용함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3:26)

πρὸς



πρὸς /함께/with



(시-공간적으로) 같이 있음 = 공존(共存)

But! 단순한 공존이 아님!

아들의 권한 (요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로고스(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밀접하지만,

그렇다고 그 속에 몰입되지 않는 친밀성을 가지고 있음

→ 로고스의 존재의 방향, 이유,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나타냄



“함께라고 번역된 πρ ς 는 다양한 용례를 가지는 전치사로, 여기서는
로고스가 별개의 인격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한다.

즉, 종속, 굴종, 맹종 등의 관계가 아니고, 함께가 갖는 운동 개념과 같이
자유의지로써 하는 산 인격적인 관계이다. 우리는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이 ‘함께’가 표시하는 천상 생활의 편린과 방향을 맛 볼 수 있다.”

→ 로고스의 인격성이 드러남



πρὸς /함께/with



토마스 아퀴나스

πρὸς 의 뜻/기능

- 로고스의 상태 :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음
- 문법적으로 뒤에 나오는 목적어(하나님)를 강조 : 권위강조
- 하나님과의 구분
- 유대관계나 합치를 의미



???
AD1982~

사도요한이 던지는 지상세계에 대한 선언

Q1: 창세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로고스는 어디에~? $\pi\rho\ \varsigma\tau\ \nu\theta\epsilon\ \nu$

Q2: 창세 전에 로고스가 있었다면, 로고스는 어떻게~? $\pi\rho\ \varsigma\tau\ \nu\theta\epsilon\ \nu$

이러한 $\pi\rho\ \varsigma\tau\ \nu\theta\epsilon\ \nu$ 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통하여 신자의 삶을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틈틈히 기도하며 성서를 읽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와 세상에 대한 관심, 생활의 방향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
 과연, 내가 거기에 맞춰 잘 살고 있는가? 자문해볼 때, 비참한 심정이 들 수 밖에 없다.



Summary



'태초에' → 창세 전 (= Before all thing was created)
 : 천지가 창조 되기 전 부터 (공동번역본)

'말씀(logos)' →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라, 있었다, 있다..' : 미완료...
 → 로고스의 **선재성**과 **영원성**을 나타냄

'함께' → 로고스의 인격성

로고스란 무엇인가? 에 대한 대답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배 은 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 16:2, 3)

역사 속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경우 가장 큰 이상을 품고 있었던 때가 10대 말에서 20대 초반까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익은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머리는 하늘을 향하되 발이 아직 땅에 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시선은 자연히 위가 아닌 앞을 향하게 되고, 몸은 점차 안주와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미국의 목사이며 작가인 찰스 셸던(Charles M. Sheldon, 1857~1946)이 1896년에 쓴 소설책의 이름입니다. 일찍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던,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기독교 고전입니다. 미국 한 도시의 목사가 주일설교를 통해 1년 동안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에 두고 행동에 옮기자는 제안을 하고, 이 서약에 참여한 각계각층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겪게 되는 기쁨과 슬픔, 고난과 핍박 등을 통해 기독교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쯤에 이 책을 처음 읽은 것 같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 시리즈를 몇 권 더 읽었는데, 다른 책들보다 기독교를 아주 쉽고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책이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책이 처음 저술된 1896년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였습니다. 그 2년 전인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 우리나라는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청나라 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오고, 부르지도 않은 일본군이 덩달아 들어와 조선 땅을 밟습니다. 침략입니다. 결국 일본군은 궁궐을 침범해 고종을 포로로 삼고, 청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승기를 잡은 후 조선의 내정에 개입해 이른바 갑오경장을 실시합니다. 이듬해인 1895년에는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는 조선의 국모를 처참히 살해하지요. 갑오년에는 궁궐을 점령당하고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 친일꼭두각시들에게 실권을 내주고, 을미년에는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살해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고종은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에 성공합니다. 이 해가 바로 1896년이었습니다.

소설 속으로

이 소설은 실직한 인쇄공이 주일 설교준비를 하고 있는 맥스웰 목사의 목사관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설교준비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나름 친절하게 응대를 했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실직자를 떠나보내는데, 이 실직자가 주일예배가 끝날 무렵 교회에 다시 찾아옵니다. 맥스웰 목사의 그 날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자>였습니다. 설교를 막 마쳤을 때, 갑자기 그 실직자가 벌떡 일어나 “수많은 실직자와 빈민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모자라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본받고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무거운 질문을 남기고 쓰러지고 맙니다.

“다만 내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기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면서 길 잃은 자들과 고통 받는 자들을 구원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p. 23.)

결국 이 실직자는 목사관에서 며칠 머물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맥스웰 목사는 이것을 계기로 그 다음 주일 설교 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보고 행동하기를 서약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의 저자인 쉘던 목사 역시 사회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실직한 인쇄공으로 가장하여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이른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무관심과 차별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 등장하는 실직한 인쇄공의 도발적 질문은 작가 자신이 겪었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며, 작가가 자칭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인쇄업계에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1886년 발명된 자동주조식자기(라이노타이프, Linotype)의 보급으로 인해 인쇄 식자 기술자들이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에 따라 많은 교인들이 서약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서약에 따른 행동으로 인해 파생된 많은 사건들에 대해 예배 후 따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생깁니다. 그 자리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놀라운 간증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위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실행함에 따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손해와 실직과 가족으로부터의 외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신문 발행인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신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함으로써 수많은 독자를 잃게 되고,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리던 철도공장의 소장은 우연히 알게 된 회사의 비리를 숨기지 않고 폭로함으로써 직위도 잃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와 고난은 단순히 선언적이거나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뺏속까지 파고드는 사실이며 실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레이먼드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시작돼 시카고를 비롯한 다른 미국내 도시에도 퍼져나가는 것으로 소설이 전개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안자인 맥스

웰 목사 자신 또한 서약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원래 이런 서약을 따로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맥스웰 목사 자신이 서약에 참여한 후 변화한 모습을 많이 보였으니까요. 맥스웰 목사의 가장 큰 변화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와 정책에 초연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맥스웰 목사의 고민이 담긴 대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선거에서 바야흐로 유권자들의 표가 예수님과 맞서는 후보자 쪽으로 기울어지려는 판국에 레이먼드 시를 위해 조용히 기도만 드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이나 어려움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그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중략)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양심과 관습과 전통의 문제일까? 그리스도인이 기꺼이 감수해야 할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변화산과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p. 127.)

레이먼드 시에는 렉탱글이라고 하는 빈민굴이 있었습니다. 술집과 도박장과 매음굴이 늘어서 있는 불법과 죄악의 소굴입니다. 레이먼드 제일교회의 담임목사 1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는 렉탱글에 대해 맥스웰 목사는 변화 이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목회자의 천막을 방문하고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할뿐만 아니라 술집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선거운동에도 개입합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자도 발생하고 선거에 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복지관도 세우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개선 활동도 시작합니다. 물론 이 사업을 혼자 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약에 함께 참여한 일간지 발행인과 대학총장이 적극 나서며, 찬양사역자를 비롯한 젊은이들도 시간과 열정과 재산을 내놓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학총장이라면 지식인으로서 선거나 행정문제에 뛰어드는 것보다 대학에서 윤리학과 철학을 강의하면서 조용히 학자다운 연구와 사색에 몰두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나의 십자가이며,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든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분열을 기피하고 일치를 추구하라고 권장합니다. 분쟁하지 말고 화해할 것을 권유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파헤치지 말고 덮어두라고 훈수를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검을 주려 세상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생과 사망의 길을 분명히 갈라놓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 인간은 끝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든지, 아니면 그분의 길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든지 신중하게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다.”(p. 159.)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총과 성령강림이 19세기 말 미국에도 강력히 임하여 한 도시와 빈민굴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바람이 주변의 다른 도시로 전파된다는 것으로 소설은 마

무리됩니다. 소설의 줄거리만을 보았을 때, 우리는 맨 처음 설교를 통해 지역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맥스웰 목사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라는 행동지침을 성실히 따랐던 신문 발행인, 철도공장 소장, 찬양 사역자, 대학 총장, 기업인, 목회자, 여성 상속인 등을 복수의 주인공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각자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그 주변을 뒤집어엮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으로

이제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미국의 작가 쉘던이 살던 시대와는 많이 다른 세상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1894년 6월 9일 동학농민혁명을 핑계로 한반도에 쳐들어온 일본군은 끝내 물러가지 않고 남아 있다가 결국은 1910년 대한제국을 집어삼켰고, 35년간 이 땅을 식민지로 삼습니다. 일본제국은 원자폭탄을 두 발이나 맞고서야 연합국에 항복을 하고, 미군에 의해 무장이 해제되어 한반도에서 철군합니다. 그 때가 1945년 9월, 일본군이 한반도 땅을 밟은 지 51년 만에 물러간 것입니다.

남의 힘으로 얻은 해방은 온전히 우리 것이 되지 못해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이 분단 점령되었고, 이것이 불씨가 되어 해방 5년도 되지 않아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맙니다. 남북 간의 전쟁은 유엔군과 중공군의 참전으로 국제전이 되고, 이것을 기회로 전범국 일본은 재기에 성공합니다. 3년간의 전쟁은 휴전으로 얼버무리지고 남과 북은 둘로 나뉘어 각자도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랜 혼돈과 무질서, 학살과 군사독재의 시대를 거쳐 남쪽이나마 마침내 민주화를 쟁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여전히 한반도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며,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지난날의 전범국인 일본은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 되어 과거사는 잊고 공동의 적에 맞서자고 우리를 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본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합니까?

과거에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교인(敎人)’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것은 불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않고, 아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과 종교를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도인(道人)’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천도교에서 많이 쓴다고는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썼던 말입니다. 교인이든 도인이든, 이 단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인류가 포유류의 일종이라고 주장해도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듯이, 종교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보통사람과 교인(혹은 도인)을 구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흔히 ‘개독’으로 불립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말에서 접두사 ‘개’는 불품없고 하찮고 흔해빠진 것에 붙는 것입니다. 그 반대말은 ‘참’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참담하게도 ‘개’가 붙은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나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원인이 구별되지 않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그들과 달리 생각하고 달리 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며,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어울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생활하니 결국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일찍이 미국의 작가 웰던이 제안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이나 관습이 아니라 성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입니다.

137년 전인 1896년, 조선은 순진하게도 미국을 절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이 나라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와 유사합니다. 러시아는 청일전쟁으로 물러간 청나라를 대신하여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하는 대신 이권 획득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 또한 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국력이 그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종 이호랑이가 되어 청일전쟁에 패하고 대만을 일본에 잃었는데, 종전 8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대만은 중국과 분리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미국과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은 어떤가요?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역시 두 나라의 양해 아래 대한제국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후엔 중국 본토를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하늘의 심판을 받았다고 믿었던 일본은 패전 후 미소 냉전을 기회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역사의 교훈,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대일본제국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 그런 일본은 이웃나라에 경계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2천여 년 전 예수님은 유대의 한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제자 삼고 더불어 가르쳤던 이들은 당시의 보통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보통 이하의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너무도 쉽고 단순해서, 그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어려운 신학과 논리를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알기는 무척 쉽습니다. 따를 의지만 갖고 있으면 알려주십니다. 어려운 것은 늘 실천입니다. 그 실천은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와의 반목과 싸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음으로 인해 이 나라는 여전히 이 모양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은 개독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패잔병처럼, 혹은 이미 죽은 자처럼 늘어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왔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창세기 공부(창 1:1-5) - 루터전집

최 길 성

(1) 창세기 1장

① 창세기 1장 1절

776 [e] hā·'ā-reṣ.	853 [e] wə·'ēt	8064 [e] haš·šā-ma·yim	853 [e] 'ēt	430 [e] 'ē-lō-hīm;	1254 [e] bā·rā	7225 [e] bē-rē-šīt
אֶרֶץ the earth	וְעִתָּא and	הַשָּׁמַיִם the heavens	אֶת -	אֱלֹהִים God	בָּרָא created	בְּרֵאשִׁית 1 In the beginning
Art N-fs	Conj-w DirObjM	Art N-mp	DirObjM	N-mp	V-Qal-Perf-3ms	Prep-b N-fs
루 터 성 경	Am Anfang schuf(창조하다 schaffen의 과거형) Gott Himmel(하늘) und Erde(대지).					
한 글 성 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 모세는 천지 창조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천지가 창조된 날(the day)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혹자는 다른 창조와 같이 “빛이 생겨라!”와 같이 표현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전에 천지가 창조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 모세가 말하는 천지는 현재와 같은 종류가 아니라, 미완성이고 형태가 없는 종류였다. 하늘과 땅이 당시에는 뒤엉켜있고 구분되지 않았다. 소위 그의 후속작(His later work)이라고 불리는 이 일은 십계명¹⁾에 따라, 6일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의 첫 번째 날에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 내가 알고 있는 한, 모세는 첫 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완성의 천지는 이후에 형태를 갖추게 되고, 완전하게 만들어지며, 분리되어 서로 따로따로 형태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들의 말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지야 생겨라!”라고 서술되었다면, 물과 빛이 창조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²⁾
-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다. 즉, 첫 날의 시작에는 진흙, 땅의 덩어리들이, 그리고 액체들과 안개들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첫 날의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빛을 만들고, 날이 생겼고, 이것들은 기초적인 씨앗이자 다른 것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었다.

1) 출20:11(내가 옛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2) 창1:3(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창1:9(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은 드러나 거라.)

<루터> 대교리 문답 (1529)	2장. 신조 ○ 제1조 <u>“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u> (Ich glaube an Gott den Vater allmächtigen, Schöpfer Himmels und der Erden.) ○ 이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본질, 의지, 하시는 일, 업적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u>이 신조는 제1계명(“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Du sollst nicht andere Götter haben.])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이요, 믿음의 고백이다.</u> ○ <u>그렇다면 이 신조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답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u> (Antwort: Das meine und glaube ich, daß ich Gottes Geschöpf bin,) 즉, 그분이 나에게 영육과 생명, 크고 작은 육체의 기관, 모든 감각, 이성과 오성,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계시는 분을 믿는다는 뜻이다. ○ <u>더 나아가 고백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악한 모든 것과 불행,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u>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말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 <u>바로 여기서 결론이 나온다.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보존하고 지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그분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u> (Hieraus will sich's nun selbst schliessen und folgen, weil uns das alles, so wir vermögen [besitzen], dazu was im Himmel und [auf] Erden ist, täglich von Gott gegeben, erhalten und bewahrt wird, so sind wir ja schuldig, ihn darum ohne Unterlass zu lieben, loben und danken, und kürzlich, ihm ganz und gar damit zu dienen, wie er durch die zehn Gebote fordert und befohlen hat.)
---	--

<칼빈> 기독교 강요 (1536년 판)	2장. 믿음: 사도신경 해석 ○ <u>“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u>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oeli et terrae.) ○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u>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창조된 모든 것들 전체의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는다. 그 분께서는 이 피조물들을 아들이신 말씀과 자신의 영원한 지혜와, 성령이신 자신의 능력으로 지으셨다</u>[시 33:6; 104:24; 행 17:24; 히 1:2-10]. ○ 우리가 그 분을 전능하시며 모든 것들의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 분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만한 섭리를 스스로 가지셨다고 사유함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고전 12:6] 종국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그 분의 손으로부터 취하였으므로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것도 그것이 통상 한 때는 형통하게 보이고 한 때는 쇠락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를 위하지 않는 것은 없다[롬 8:28]. ○ 그렇기 때문에 <u>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 지극한 선하심에 감사를 돌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음미하고, 우리의 혀로 그것을 선포하며, 가능한 찬미로 그 분을 높이는 것이다</u>[Quamobrem danda opera, ut gratiarum actionem tantae bonitati referamus, illam cum animis nostris reputemus, illam lingua praedicemus et quibus possumus laudibus tollamus.]. ○ <u>그러므로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못지 않게 그 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대망(待望)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각자가 가진 것으로서 사도신경 첫째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참되다</u>[Est enim certissimum ac verissimum, hanc esse rectam fidem, quam ut uisque habeat, hac prima Symboli parte docemur.].
--	---

② 창세기 1장 2절

	430 [e] 'ē-lō-hīm, אֱלֹהִים of God N-mp 7307 [e] wə-rū-ah וְרוּחַ And the Spirit Conj-w N-csc 8415 [e] tə-hō-wm; תְּהוֹמוֹת of the deep N-cs 6440 [e] pə-nê פָּנֵי the face N-cpc 5921 [e] 'al- עַל- [was] over Prep 2822 [e] wə-hō-šek וְחוֹשֶׁק and darkness Conj-w N-ms 922 [e] wā-ḥō-hū, וְבָהוּ and void Conj-w N-ms 8414 [e] tō-hū תְּהוֹ formless N-ms 1961 [e] hā-yə-tāh הָיְתָה was V-Qal-Perf-3fs 776 [e] wə-hā-'ā-res, וְהָאָרֶץ And the earth Conj-w, Art N-fs
	4325 [e] ham-mā-yim. הַמַּיִם: of the waters Art N-mp 6440 [e] pə-nê פָּנֵי the face N-cpc 5921 [e] 'al- עַל- over Prep 7363 [e] mə-ra-he-peṭ מְרַחֶפֶת was hovering V-Piel-Prtcppl-fs
루터성경	Und die Erde war wüst(혼란한) und leer(공허한), und es war finster(암흑) auf der Tiefe(깊음); und der Geist(영) Gottes schwebte(물 위에 떠있다) auf dem Wasser.
한글성경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계셨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 히브리어 **בְּהוּוּ** (bôhûw)는(공허함[bôhûw]), 불모지, 황무지[tôhûw])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 **בְּהוּוּ** ([tôhûw])는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고, 때문에 지구는 완전히 **בְּהוּוּ** ([bôhûw]) 비어 있었다. 즉, 길도, 도시도, 언덕도, 계곡도, 풀도, 잡초도, 동물도 그리고 인류도 없었다. 미완성의 지구의 모습은 정말로 그러했다. 진흙과 물은 뒤엉켜있었고, 지금과 같이 관찰할 수 있는 물체들은 전혀 없었다.
-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지구의 황량함에 두려움을 느낄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이사야(34:11)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 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예언은 유명한 고대의 모든 도시들의 멸망처럼 예루살렘이 이후에 로마인들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로마는 고트족에 의해 짓밟힐 것을 의미한다. 모세는 첫째 날에 천지가 창조되었지만, 이는 물과 뒤섞인 미완성의 하늘이었고, 빛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물질(matter)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almost nothing)와 같으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같기 때문에 중간 세계(intermediate reality)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어떻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모세가 말한 것에 비유할 수 있는가? 아직 나무 상자나 벤치가 되지 않은 원목을 보고 ”물질“이라고 억지로 꾸며대는 것과 같다. 물론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다.
- 베드로 후서(3:5-6)에는 악인들에게 한 말 중에 주목할 것이 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 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 베드로는 지금의 바다가 대지 위에 있는 것처럼 대지가 물 밖으로 나오으로써, 물을 통

해서, 물로부터 이끌어져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악인들은 물이 대신의 근본인 줄 알면서도 물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말할 것도 없이, 대지가 최후의 날(end of the time)에 불에 의해 멸망할 것처럼, 물은 대지를 파괴시켰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안팎으로 대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물과 심연과 하늘은 이 구절에서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어둠과 미완성의 물질은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분리되고 제공될 것이다. 이것들은 제2의 위격(Second Person)을 의미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는 미완성의 뒤영킨 물질들을 분리시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물을 만들어내신다. 이것이 왜 모세가 첫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이라는 구절을 쓰지 않은 이유이다.
- 혹자는 “하나님의 영”을 바람(wind)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의 영은 “성령(Holy Spirit)”을 의미한다. 바람도 창조되는 것이고,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기에 천지는 뒤영켜있었다. 여기에 삼위일체(Trinity)의 신비가 있음을 교회들은 합의한다. 하나님(The Father)께서 아무것도 없는 천지를, 모세가 말씀(The word)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The Son)를 통해, 창조하셨고, 성령(Holy Spirit)이 이것들을 품고 있는 것이다. 닭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품고 있듯이, 온기를 통해 생명 불어넣기 위해 성령이 품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 쓰여있다. 이는 물 위를 거닐고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성령의 역할은 살아 숨쉬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³⁾
- 혹자는 “태초에”라는 구절에 논쟁을 제기한다. 그들을 “태초에(in the beginning)”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in the Son)”라고 해석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구절을 인용한다.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The beginning)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요8:25)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온 희랍어에는 Τὸν ἀρχὴν는 반드시 부사(adverb)로 번역되어야 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이다. 나는 “태초에”라는 뜻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세계가 시작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한다. 당시 천지는 오랜 시간 미완성 상태였는데, 갑자기 창조의 첫 날(the first day of the beginning)에 빛과 함께 완성하신 것이다.
- 아리안(Arian)논쟁에서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 전(before the beginning)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⁴⁾ 이 생각은 얼마나 불경스러운가! 다른 질문을 던져보자. 그렇다면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시작 전의 상태는 쉬고 계신 건가, 일하고 계신 건가?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오지랖 넓게 이런 질문을 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준비하셨다.”고 한다.

3) 니케아 신조에도 잘 드러난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Lord, the giver of life,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의 부여자와 주님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부여자”는 같은 의미이다.

4) 아리안 논쟁(Arian Controversy): 아리우스는 예수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신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며 예언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논쟁 이후,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고, 삼위일체 사상이 완성되었다.

- 정말로 어거스틴의 겸손함은 나를 기쁘게 한다. 이런 질문의 끊임없는 추측과 토론은 우리의 이해 밖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가정하는가? 태초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은 없애버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필요하셨을 휴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
- 모세는 “태초에”라는 단어를 쓸 때,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형을 사용했다. וַיְהִי כֵן וַיֵּשֶׁב אֱלֹהִים וַיִּבְרָא אֱלֹהִים וַיִּבְרָא אֱלֹהִים 왜 그런 것일까? 유대인들은 이를 꺾변으로 풀어내지만, 우리는 모세가 삼위일체와 하나의 신성(one single divine nature)안에 위격(persons)의 집합체를 보여주기 위한 힌트를 주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의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는 복음을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다.
-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전에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요8:58),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 예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잠8:27) 아리우스의 주장은 미치고 사악한 주장이며, 모세의 “태초에”라는 말에 따라 철저히 반박되어야 한다. 창조 이전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한다. 모세가 삼위일체를 나타내기 위해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
- 교황 칙령은 하나님을 사람의 형태로, 눈, 코, 팔이 있는 것처럼 의인화(인간화) 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그러나 나는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왕좌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표현하기 때문이다. 무지한 사람이 이 구절을 들으면, 그들을 즉시 황금색의 경탄할만한 왕좌를 생각할 것이다. 물론 하늘 나라에 황금이라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안다. 그래서 이사야도 예수께서 옷을 입고 계신다고 말한다. “옷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이사야6:1)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직관적 인식(direct perception)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 허락받은 것이다.

③ 창세기 1장 3절

216 [e] 'ō-wr. אֹר: light N-cs	1961 [e] way-hī- וַיְהִי - and there was Conj-w V-Qal-ConsecImperf-3ms	216 [e] 'ō-wr; אֹר light N-cs	1961 [e] ye-hī יְהִי let there be V-Qal-Imperf.Jus-3ms	430 [e] 'ē-lō-hīm אֱלֹהִים God N-mp	559 [e] way-yō-mer וַיֹּאמֶר And said Conj-w V-Qal-ConsecImperf-3ms
루터성경	Und Gott sprach: Es werde Licht! und es ward Licht.				
한글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라고 모세는 여기에서 처음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이미 미완성의 천지가 창조되었으며, 이는 첫 날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히브리어에는 ~~말~~이라고 써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다의 의미가 아니다. 엄격하게 명령할 때 쓰는 어휘이다. 네오아리안주의자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이를 창조하다라고 번역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에 의해 창조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속인다. 모세는 분명히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is speaking-현재진행형), 말씀하시는(speaks-현재형) 것과는 분명히 구별되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우리는 앞에서 삼위일체에 대해 증명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명령하는 화자(Speaker)이며, 하나님은 물질을 이용하여 창조하지 않으셨고, 말씀으로만 만드셨다. 요한복음과 비교해보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요 1:1) 모세로 돌아가보자. 빛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말씀을 통해서 빛이 창조되면서 어둠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그리고 모든 창조 이전에는 말씀이 있는 것이다. 요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창조 이전에는 그 어떠한 창조물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모세로 돌아가보면, 그는 빛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어둠은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인 빛으로 변화하였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태초에 그리고 그 창조 이전에는 말씀이 있었고, 강력한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 바울은 창조자의 위대한 첫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고후 4:6). 누가 어둠속에서 빛이 비쳐라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는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사실이다.
- “만약에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됐다면,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질문은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악한 자들의 생각은 금지되어야 한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사실 이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을 돌보셨고(begets), 예수 그리스도는 보살핌을 받았다(begotten). 이러한 신비함은 신약성서에 잘 표현된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요 1:18) 우리는 분명하게 다음의 이름을 듣는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을 다소 다르게 설명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성(reason)이고, 그림(image)이며, 지혜(wisdom)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Father)의 말씀이고, 하나님(God)과 함께 확고히 되었다.” 이는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히1:2),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골1:16)

- 바울도 말한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롬 4:17)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엡1:4) 그래서 바울은 골로세서에서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라고 하고 있으며 특히 “말미암아(through)”을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through”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를 모세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말씀이 들렸을 때 빛이 존재하게 된 것이지, 어둠에서 스스로 빛이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적으로(inwardly) 말씀하셨고, 외적으로(outwardly) 빛이 즉시 생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창조의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여기서 유명한 질문이 등장한다. “미완성의 천지를 비추는 빛은 어떤 종류입니까?” 태양과 별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장의 빛은 물리적인(physical) 빛이다. 혹자(어거스틴)는 이 빛을 천사(angelic creature)로 본다. 비슷하게 “그는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시키셨다”를 “악에서부터 천사를 분리시키셨다”라고 해석한다. 이는 성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며, 가당치도 않은 말이며서 심도 있게 볼 필요도 없다.
- 다음 질문은 “이 빛은 원운동(circular motion)을 하였는가?”이다. 나도 솔직하게 모른다고 시인한다. 하지만 지속해서 진실을 물어본다면, 나는 이 빛이 지금과 같이 원운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빛이 정확히 어떤 종류였는지 말하기는 매우 어렵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세는 분명하게 창조의 첫 날에 빛이 있었다고 얘기하고만 있다.
- 그러므로 나도 진정한 빛(true light)이 있었고, 햇빛(sunlight)과 같이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 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일곱 배나 밝아져서 마치 일곱 날을 한데 모아 놓을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사30:26) 이 구절에 따라 최후의 날(Last Day)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햇빛보다 더욱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빛을

만드실 것이기에, 현재의 빛은 미래의 빛보다 약하고, 태초의 빛은 지금의 빛에 비해 약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④ 창세기 1장 4절(주해가 없음)

996 [e] 216 [e] 996 [e] 430 [e] 914 [e] 2896 [e] 3588 [e] 216 [e] 853 [e] 430 [e] 7200 [e] û-bén hā'ô-wr bēn 'ē-lō-hīm, way-yab-dél tō-wb; kī- hā'ô-wr 'et- 'ē-lō-hīm way-yar וּבֵּין הָאֵוֶר בֵּין אֱלֹהִים וַיַּבֶּדֶל טוֹב כִּי הָאֵוֶר אֶת־ אֱלֹהִים וַיַּרְא and between the light between God and divided [it was] good that the light - God And saw Conj-w Prep Art N-cs Prep N-mp Conj-w V-Hifil-ConsecImperf-3ms Adj-ms Conj Art N-cs DirObjM N-mp Conj-w V-Qal-ConsecImperf-3ms									
2822 [e] ha-hō-šek. הַחֹשֶׁךְ: the darkness Art N-ms									
루터성경	Und Gott sah(보셨다), daß das Licht gut war. Da schied(나누시다) Gott das Licht von der Finsternis(암흑)								
한글성경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⑤ 창세기 1장 5절

6153 [e] 1961 [e] 3915 [e] 7121 [e] 2822 [e] 3117 [e] 216 [e] 430 [e] 7121 [e] 'e-reb way-hī- lā-ye-lāh; qā-rā wē-la-hō-šek yō-wm, lā'ô-wr 'ē-lō-hīm way-yiq-rā עֶרֶב וַיְהִי לַיְלָה קָרָא וַיְהַשֵּׁךְ יוֹם לְאֹרֶ ׀ אֱלֹהִים וַיִּקְרָא evening And there was night He called and the darkness day the light God And called N-ms Conj-w V-Qal-ConsecImperf-3ms N-ms V-Qal-Perf-3ms Conj-w, Prep-I, Art N-ms N-ms Prep-I, Art N-cs N-mp Conj-w V-Qal-ConsecImperf-3ms									
259 [e] 3117 [e] 1242 [e] 1961 [e] ṗ 'e-hād. yō-wm bō-qer way-hī- פּ אֶחָד יוֹם בֹּקֶר וַיְהִי - the first day morning and there was Punc Number-ms N-ms N-ms Conj-w V-Qal-ConsecImperf-3ms									
루터성경	und nannte(이름짓다) das Licht Tag und die Finsternis Nacht. Da ward aus Abend und Morgen der erste Tag.								
한글성경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evening)부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되려면 다음날 밤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양이 뜨면 하루의 시작이라고 본다.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히브리어 단어 עֶרֶב는 “섞인”(to mix), “혼동하는”(to confuse)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단어에서 침파리(dogfly)라는 단어가 유래했고, 소위 “confused fly”라고 불리는데, 어두워지면 사물

의 구별이 불분명해지고, 빛이 없어지면 사물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 모세는 첫 날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나머지의 창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창공하늘(firmament)아 생겨라.” 이런 구절의 반복은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인데, 이는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며, 여러 위격(persons)의 집합체(unity of Godhead)이며, 하나는 화자(speaker)이며, 다른 하나는 말씀(word)이다.
- 시편에서도 언급된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시33:6) 솔로몬은 잠언에서 창조의 조력자를 언급할 때 모세의 이런 놀라운 표현을 언급한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잠8:22-27) 솔로몬은 모세로부터 이 신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그 사람의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말 네가 아느냐?”(잠30:4)
- 나는 에녹이나 엘리야의 말에서도 이러한 증언들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신약에서도 명확히 이런 내용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다수에 의해 거부되고 반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브라함은 삼위일체를 직접 보고, 하나로 섬겼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창18:2) 성령도 말한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창19:24) 몽상가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단어들을 알고 있으며, 술 취한 사람(drunken person)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
- 교부 힐라리우스(Hilary)⁵⁾는 이러한 증언들에 대해 정리를 잘 해두었다. 만약 이 사실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면,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면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One person)은 말하시는 하나님이며, 다른 사람(The another)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현재까지 지켜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 성서에도 그렇게 쓰여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 능력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계십니다.”(히1:3)

5) 힐라리우스 - 힐라리우스의 유명한 작품은 열두 권에 이르는 [삼위일체론]이다. 성자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에 대항하여 이렇게 말한다. “아드님은 영원하시며, 언제나 아드님이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시간이 있기도 전에 나셨기 때문이다.” 그의 [삼위일체론]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끼쳤으므로 힐라리우스는 신앙의 수호자로 꼽힌다.

- “빛아 생겨라”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모세의 말이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실존(reality)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게 존재하라고 부르신 것이다.(롬4:17) 하나님께서는 문법적인 단어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는 실존하는 것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러므로 태양, 달, 하늘, 땅, 베드로, 바울, 나, 당신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들(words of God)이다. 창조물 전체와 비교하면, 우리는 하나의 음절(syllable) 또는 하나의 글자(letter)이다. 우리는 사물들에 각각의 이름을 부여한다. 하지만 신의 언어(language of divine)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빛아, 빛나라” 그러면 태양은 생기는 것이고,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들의 말씀은 실존하는 것이지, 단지 말로만(bare word) 하시는 것이 아니다.
- 사람들은 창조되지 않은 말씀(uncreated word)과 창조된 말씀(created word)을 구분하려고 해왔다. 창조된 말씀은 창조되지 않은 말씀에서 유래한 것이다. 창조되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Divine thought)이시며, 하나님에게 깃들여진 내적 명령(inner command)이며, 하나님과 같지만, 구분되는 위격(person)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되지 않은 말씀으로 말하시는 분(Speaker)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말씀으로(by speaking)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힘들이지 않고(no more effort) 창조를 하셨다. 교부 어거스틴과 힐라리우스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기뻐하였다.

정의	하나님께서 물질(특히, 영혼)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모든 생명체가 순전히 자연과정을 통해 진화할 때까지, 물질의 자연적 작용을 유도하거나 그것에 개입하거나 직접 행동하여 경험적으로 탐지될 만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신 것(웨인 그루뎀 외, 2019, 77).
전제	(1) 우주는 약 140억년 전에 무에서 창조되었다. (2) 확률적으로 대단히 희박해 보이지만, 우주의 여러 특성은 생명이 존재하기에 적합하게 짜여졌다. (3) 지구상에 처음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생명이 탄생한 뒤로는 대단히 오랜 세월을 걸쳐 진화와 자연선택으로 생물학적 다양성과 복잡성이 생겼다. (4) 일단 진화가 시작되고부터는 특별한 초자연적 존재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5) 인간도 이 과정의 일부이며, 유인원과 조상을 공유한다. (6) 그러나 진화론적 설명을 뛰어넘어 정신적 본성을 지향하는 것은 인간만의 특성이다. 도덕법이 존재하고 역사를 통틀어 모든 인간 사회에서 선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그 예가 된다. (프랜시스 콜린스, 2009, 202)

(2) 유신진화론 논쟁

① 평양 장로회신학교 어도만⁶⁾, 이눌서⁷⁾

- 어도만(진화론과 창세기, 「신학지남」 3권3호, 1920): 진화론에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원인적 진화론⁸⁾과 방법적 진화론⁹⁾인데, 만일 원인적 진화론을 찬성할 것 같으면 진화론과 창세기의 이치가 합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니 그런 이들은 원인의 근원이 없다하는 까닭이로되, 방법적 진화론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형적 우주를 조성하실 때에 행하신 방법으로 설명하는 이치이다. 두 가지 중에 어느 이론을 취하던지 과학은 우주가 본래 어떻게 생긴 것을 설명하지 못하니, 우주가 본래 어떻게 생긴 것을 알고자하면 창세기 1장을 보아야 할지니, 우주가 자연히 생긴 것이 아니요, 근본되시는 이가 계신 것이 분명한 즉, 우리가 이런 근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면 창세기와 과학이 모순된다 할 이유가 없나니라.
- 이눌서(창조주의자와 진화주의자가 합의할 수 있나뇨, 「신학지남」15권6호, 1933): 만일 조물주가 창조 후에 다수로 변화함을 용납하였으면 제가 불임한계를 초월시킴을 믿지 못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필경 저의 확실히 창조한 것을 승인함이 긴요한 사실이요, 창조 이래 다량의 변화는 그리 긴중하지 않은 문제이다.

② 함석헌(성서적 입장에서 본 세계역사(9)-, 3. 인류의 출현까지(속), 「성서조선」제96호, 1937)

- 진화란 복잡화의 과정이다. 간단에서 복잡으로 - 이것은 진화의 과정을 일관하는 원리이다. 왜 복잡화할 필요가 있느냐. 진화의 현상에 대하여 필요를 찾는 것은 학문에 의하면 우둔한 일인지 모르겠으나 진화의 배후의 하나님의 손을 찾는 우리에게 그는 긴한 일이다. 대체 신은 왜 만물을 지었나? [중략] 신 자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금할라야 금할 수 없는 사랑의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고로 이는 은총이다. 그렇다. 만물은 신의 은총에서 나온다. 고로 만물은 있어서 있는 자로서의 신의 표현이다. 저는 그 무한성을 '다(多)'에서 발표할 수 밖에 없다. 생물의 복잡화는 제한 없는 것으로서 생육하고 변성하라는 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③ 위르겐 몰트만(Juergen Moltmann)¹⁰⁾

- 몰트만(「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생태학적 창조론」, 한국신학연구소, 2007): 창조는 시간의 창조임과 동시에 '변화'의 창조(creatio mutationis)이기 때문에 진화는 무로

6) Walter C. Erdman, 1877-1948.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1916-1931년까지 평양신학교에서 구약신학과 변증학을 가르침.

7) William D. Reynolds, 1867-1951.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의 제자. 1917-1937년까지 평양신학교에서 고전어와 변증학을 가르침.

8) 생명의 생성과 변화의 원인을 자연 자체로 보는 이론으로서 자연주의(무신론적) 진화론을 의미함.

9) 진화를 하나님이 우주창조의 방법으로 사용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 진화론으로, 유신진화론을 의미함.

10) 튀빙겐 대학교 명예교수로, 칼 바르트 이후 현대 신학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받는 신학자(1926-)

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라는 창조론의 핵심 개념과 모순되지 않으며 창조를 뒤따르는 계속적 창조(creatio continua)와 동일시된다. 그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세계의 현존의 기적과 존재자 자체의 시간의 우연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를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는 진화들의 단계들로 파악한다. 여기에서 ‘우연’은 맹목적 우연(blind chance)이 아니라 의도된 우연(intended fortuitousness)을 가르키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의 선하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창조를 지향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즉, 무로부터의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롭게 의도된 사건으로서 하나님 자신과 그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를 표현하기 위해 우연이라는 개념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몰트만은 유신진화론이라는 개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윈이 주장하는 자연선택과 적자생존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계획된 진화의 개념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해볼 때, 그는 진화와 동일시되는 섭리가 하나님의 동반하는 사역으로 협력(concursus Dei)이라는 관점에서 유신진화론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설정하신 질서의 지속성에 대한 관심사를 계속적 창조 사상과 결합시켜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자연질서의 지속성이라는 관점은 현대 자연 이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창조하신 각각의 피조물의 종류와 체형에 따른 형태들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략]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을, 단순히 과거에 설정된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기회는 진화론을 통해 신학에 주어졌다.

④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Wolfhart Pannenberg)¹¹⁾

- 판넨베르크(「판넨베르크 조직신학Ⅱ」, 새물결플러스, 2018): 몰트만과 마찬가지로 유신진화론을 쓰지 않았으나, “인류가 생명진화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배제하지 않는다. 동물들조차도 자신의 삶의 실현 속에서 하나님 및 그분의 영광 관계되어 있다면, 인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창발적 진화(emergent evolution)를 주장하는데, 구약성경 특히 이사야 40장 이후에 언급된 창조기사에 주목하면서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에 나타난 창조적 특성에 대한 진술을 제시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진화 과정에서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순수한 새로움이 점진적으로 복잡한 방식으로 발생한다는 개념을 지칭한다. 즉, 새로움의 생성은 계속적 창조를 통해서 진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생명체의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에 근거하여 생명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있다. 즉, 전체성을 이룬 새로운 유기체는 자기 조직화를 위한 규칙을 만들어서 자신을 둘러싼 조건들에 대항하는 역작용을 통해서 주

11) 독일 루터교회 신학자로, 그리스도론을 체계화한 신학자로 평가받음.(1928-2014)

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새로운 요소로 출현시킨다고 본다.

⑤ 가톨릭의 입장(교황 비오 12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교황 비오 12세(「인류의 기원」 회칙 제36항, 1950):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교회의 교도권은, 과학과 신학의 현재의 상태에 따라, 이 양편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부분에 대해, 기존의 생명체로부터 오는 것으로서의 인간 육체의 기원에 대해 탐구하는 한-왜냐하면 우리는 가톨릭 신앙으로 영혼은 하느님에 의해 직접 창조되었다고 여겨야 하기 때문이다-진화론과 관련해서 연구와 논의를 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 요한 바오로 2세(「진리는 진리를 거스를 수 없다」, 1996년 교황청 과학원 연설문): Humani Generis 회칙에서 나의 전임자 비오 12세는 인간과 인간의 소명에 관한 신앙 교리와 진화론 사이에 대립(모순)이 없다고 이미 말했습니다.(3항: In his encyclical Humani Generis (1950), my predecessor Pius XII had already stated that there was no opposition between evolution and the doctrine of the faith about man and his vocation, on condition that one did not lose sight of several indisputable points. [중략] 존재론적 불연속성[=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몸은 진화해 온 사실]을 제기하는 것은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서 진화에 대한 연구 주요 주제로 보이는 물리적 연속성에 위배되지 않는가? 다양한 지식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고려하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관점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6항: With man, then, we find ourselves in the presence of an ontological difference, an ontological leap, one could say. However, does not the posing of such ontological discontinuity run counter to that physical continuity which seems to be the main thread of research into evolution in the field of physics and chemistry? Consideration of the method used in the various branches of knowledge makes it possible to reconcile two points of view which would seem irreconcilable.)

⑥ 박형룡 목사¹²⁾

- 박형룡(「근대기독교신학난제선평」, 1977): 우리는 그 노력(=진화론과 기독교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기교함과 주도함에 탄복할 바 없지 않으나, 그 어느 것이나 정통적 과학과 정통적 신학에게는 승인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데서 또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진화론이 자연계와 정신계에서 엄연한 사실로 입증된 다름에는 모르겠거니와, 진화론이 아직도 불완전한 가설로 남아있는 오늘에, 구태여 진화론을 기독교에 끌여 들이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이 덤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소위 중재적, 조화적 이론은 필요치 않다. 즉, 이미 태동된 소위 기독교진화론과 같은

12) 평안북도 벽동 출신(1897-1978)으로, 50여 년의 신학활동에 칼뱅주의적 신앙을 고수한 보수주의적 정통신학자로 평가받음.

다난무익한 이론을 형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⑦ 한국창조과학회(KACR)¹³⁾

- 한국창조과학회(「기원과학」, 두란노, 2000): 생명의 기원에 관한 학설은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대비된다. 진화론은 유물적, 무신론적 이론으로서 생명이 원자에서 출발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저절로 우연히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요, 창조론은 생명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에 의하여 특수 창조되었다고 본다. 이 두 이론은 모두 다 그 독특한 성격 때문에 실험을 통하여 사실 그대로를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생명체의 구조나 기능 또는 화석과 같은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어떤 모델이 과학적으로 더 타당성이 있고 논리에 맞는지 판별하여야 한다. 생명의 기원을 생물학적, 열역학적, 수학확률적, 화석학적, 지구과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생명체가 우연하게 저절로 발생했다는 진화론보다는 창조주의 설계와 지혜의 산물이라는 창조론이 더 과학적 논리에 맞고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⑧ 유신진화론을 거부하는 개신교 입장

- 첫째, 유신진화론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는데, 굳이 오랜 세월동안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창조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순간적으로 창조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이 세워놓은 자연법칙, 곧 자체적으로 충족된 시스템에 의해(=진화에 의해) 맡기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칙에 갇혀서 활동에 제약 받는 존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 둘째, 유신진화론은 죽음이 필연적으로 전제된 진화론을 기초로 한 이론이기에, 죄의 결과로 인간의 운명이 된 죽음에 대한 성격적 가르침과 정면충돌한다.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 중 하나는 타락의 교리인데, 죽음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타락으로 초래된 결과로써, 모든 세계에 임하게 된 비극적 운명이다. 그러나 유신진화론에서는 수십억 년에 걸친 동물들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한다. 특히, 진화론의 가장 핵심은 자연선택설인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활동 가운데 사용하시는 창조과정으로 약자들이 강자들의 먹이가 되었다고 본다. 이는 창세기 1장 29-30절¹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채식만 하는 동물 사이에서 약육강식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죽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죽음의 문제는 원죄와 관련

13) 1981년 설립된 단체로, 미국의 창조과학연구소(ICR)의 협조아래 창조-진화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14) 창1: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1: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된 중요한 문제로 만약 죽음이 존재했다면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셋째, 유신진화론은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와 타락 이야기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아담이란 존재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며, 신화적 존재이며, 죽음의 원인인 타락도 결국 역사적 사실과 다른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바울은 아담의 역사성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과 결부시키는데, 이를 죽은 자의 부활의 근거로 삼는다(고전 15:12-23)¹⁵⁾. 결과론적으로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부정하는 것이다.

(3) 무교회 선생님들 글

① 송두용 선생님(창조의 유락 - 1931년 8월 성조 31호)

-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즉,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다. 하나님은 완전무결한 지혜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삼라만상 무엇 하나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다. 그러므로 성서에 “대개 만물이 저에게 지음을 받은지라. 무릇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혹은 위에 있는 것이나 주관하는 것이나 정사나 권세나 만물이 다 저로 말미암아 … 지음을 받은지라.”(골 1:16)고 있으며, 또 “우리 주 하나님여,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계 4:11)라 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만물이 저로 인하여 되었으니 지음을 받은 것의 하나도 저를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 1서 3절의 직역)고 기록된 바와 같다. 옳다. 하나님은 과연 창조자이시다.
- 우리가 만약 창세기 첫 장을 펼친다면 그 벽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창 1:1)라는 위대무쌍한 문구에 접할 것이다.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그 엄연한 태도와 진실한 광경을 감히 엿볼 수 있다.
-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 한다. 그렇다.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우주와 만물은 모두가 하나님의 그 지극의 거룩한 이상과 그 절대로 위대한 계획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장엄하고도 우미하며 신비하고도 오묘한 우주 만유는 지성, 지존, 지선, 지애의 총화이신 최고의 진리자, 절대적 권위자, 또 시간, 장소를 초월하신 영원 유일의 영적 실재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독창인 천지와 만물!
- 아! 이에 우리는 절대로 안심할 수 있구나! 따라서 우리의 만족, 환희, 감사는 넘치고 넘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우매자의 생각과 같이(시 14:1) 천지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즉 창조자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또

15)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떤 실없는 사람들의 말과 같이 만물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엇이 지은 것도 아니다. 즉 하나님 이외 무슨 신이나 혹은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 지은 것도 아니다. 결코 그러한 것도 아니다.

- 그런데 하나님은 기계와 같이 창조만 하시는 자는 결코 아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다. 인격적 실재자이신 하나님은 창조하심을 무한히 즐기시며 또 심히 기뻐하신다. 그 희열의 정도는 우리의 상상에 지날 것이다. 창세기 첫 장에 “하나님이 보시매 좋은지라.”를 일곱 번이나 기록하였으며 또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매 매우 좋은지라.”(창 1:31)고 언표하였음은 정히 하나님의 희열의 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기쁨은 비상히 컸을 것이다.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매 매우 좋은지라.”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또 창조를 기뻐하셨다는 의미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를 계속 하신다.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를 것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과 동행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매 나도 또한 일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요 5:17).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를 기뻐하신다. 심히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심을 마지않으신다.
- 제1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은 제2창조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제1창조는 아담의 창조로 시작하셨고, 제2창조는 그리스도 수육으로 비롯하셨다. 제1창조는 육의 창조요, 제2창조는 영의 창조이다. 즉 제1창조는 제2창조를 위하여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1창조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제2창조를 더욱 기뻐하심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2창조에 관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눅 15:32)고 말씀하신다. 아! 감사할거나! 하나님의 제2창조로다.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일인가?
- 예수 이전을 구약시대라 하며, 예수 이후를 신약시대라 한다. 구약시대를 제1창조기라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정히 제2창조기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는 제1창조기 즉 육의 창조 시대에서 제2창조기 즉 영의 창조 시대를 건설 확립하신 획기원적 하나님의 성사자이시다. 아니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말씀(Logos)이 수육하신 자이다. 저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그 영광은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는 정히 제2창조자, 즉 영의 창조자이신 것이 확실하도다. 그러므로 예수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또 이를 위하여 세상에 임하였으니”라고 선언하셨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에게 들을지어다! (요1:1, 14, 18:37)
-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도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유락은 조화이다. 주 예수의 유락도 또한 창조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신자 어찌 창조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다. 우리는 창조하여야 하며 또 우리의 유락도 또한 창조이지 아니치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함에 노력하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또 예수와 같이 창조하자! 우리의 유락이 창조에 있어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인 것이

다. 지금은 제2창조기니 우리는 마땅히 영적 창조에 힘써야 할 것이다. 형제여, 힘쓰라. 영적 창조에!

② 유희세 선생님(과학과 신앙 - 성서연구 제148호. 1966.11.)

- 과학과 신앙은 원래 그 영역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질적인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란 점에서 너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과학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일, 신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 과학은 현세의 일, 신앙은 내세의 일. 과학이 점점 정신적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은 사실인지 몰라도 영의 저쪽 세계를 취급하지는 못합니다.
- 과학은 결국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과학과 신앙을 혼동하는 것은 율법과 신앙을 혼동하는 데에서 옵니다. 과학자의 눈치를 슬슬 보는 종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의 눈치를 보다가 바울의 면박을 받은 계바와 같습니다.
- 과학 하는 마음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허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과학자는 먼저 정직하여야 하며, 과학 하는 동기는 먼저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하다는 뜻은 과학 하는 마음에 어떤 불순한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독일의 교육에 있어서는 실생활의 이해를 고려한 고등교육에는 '대학'이란 이름조차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학문의 순수성, 학문하는 마음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하는 마음이 경외, 겸허에 있고, 성실 정직에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신앙하는 마음과 통하는 고귀한 마음입니다. 축복받은 마음입니다. 현대 과학의 열매로서의 원자력, 인공위성, 오토메이션도 이 고귀한 인간정신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녀에 합당한 의로운 삶에 대해

배 지 현

학생들은 아는 만큼 실천해야 한다는 지식인으로서의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기후위기, 여성평등 같은 가치들은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거대한 나쁜 세력이 장기간 지배하는 현실에서, 사회운동은 좌절하고 변절하고 꺾인 것에 비해, 풀무학교의 정신적 기초가 된 무교회주의는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희망과 힘을 받아, 한명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노평구 선생님은 역사적인 현실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교회 안 밖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회운동을 하는 기독교를 왜 걱정하시는가? 신앙이 있고 그 위에 도덕적 실천을 더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모든 세상 문제의 중심에는 각 사람의 죄의 문제가 있고 그 죄의 문제 해결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알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의 힘과 노력, 선의, 지식을 더욱 중심에 두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또한 무교회주의에는 현실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 모두가 절망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타락해 갈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받아, 하나님 나라와 의에 합당한 일을, 작게 보이더라도 오랜 시간 꾸준히 해 나가, 결국은 그 열매를 후세에 전해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읽으며 생각해 보고 싶다.

[로마서 9:30-33]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 기록된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1. 상대적으로 더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더욱 큰 죄가 깃들 수 있다.

(1)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로운 실천을 할 수 있는가? - 사회운동,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문제

[나의 경우] 바르게 살려는 이상을 지향하는 마음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심해 스스로 많이 위축되어, 좀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안학교에 가게 되었다. 언행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철저히 실천하는가로 사람들을 판단했다. 자신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인식은 전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겐 높고 낮음이 있고 소수의 훌륭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영광을 구했다.

자기가 건드려지는 상황이 되면 질투, 시기, 상대에 대한 분노와 적의에 휩싸인다. 바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화가 나서 힘들다고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 모두 자기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할 때, 더욱 참담하고 슬퍼지는 지독한 자기중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시기, 질투, 미움 같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감정들이 오고 가는 것도 실망스러웠다. 나의 단점과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비교에서 위로를 얻고, 내가 아무리 단점과 부족함이 많아도 저런 정도는 아니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상황이 변해 나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큰 비참함을 느낀다.

경쟁 사회가 낳는 폐해라고 생각하며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여러 면이, 사실은 내 본성에 아주 깊고 크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완성을 향해 조금씩 나아지겠지 했지만, 뭔가 좀 나아졌다 싶으면 곧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의로운 만족감과 자신에 대한 안심에 빠졌다. 바른 가치를 위해 애쓰는 자신을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배제하면 분노가 솟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로 그 상대를 쓰러뜨리려 한다. 이렇듯 노력해서 나아진다고 해도 더 큰 어둠과 죄가 있다고 실감했다.

[마을에서도] 학교가 있는 마을에는 기독교 신앙 없이도 양심과 개인의 신념에 따라, 자본주의 불평등 문제, 생태와 환경 문제에 대안적 삶을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다. 20년 전 각자의 양심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공적인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중요하지만, 오직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다. 또한 그런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비교할 때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할 점이 있는가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던 선한 일들의 색이 변해가

는 것을 많이 본다. 공적인 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음에도, 이기적인 이유로 반대당하고, 부족하다고 비난받고, 오랜 수고로 좋은 결과가 생겨도 자신의 수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변해간다. 가까이 부딪히면서 사람들 마음에 있는 죄를 알게 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미움은 정당화되고,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구하고 위로하며 지낸다.¹⁶⁾ 젊은 시기의 귀한 마음이지만 쉽게 변질될 수 있다.

[바른 것을 추구하고 실천하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문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는 의로움은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원죄를 더욱 크게 해서, 가장 선한 삶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큰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랐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간의 공통된, 죄 된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

(2)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으나 가장 큰 무거운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

[바리새인에 대해]

바빌론 포수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재건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국 무산되고 암흑시기가 400년 이상 계속 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살려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타가 인정했던 의인들이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¹⁷⁾를 들었듯이, 말과 행동에 시비 거리가 없이 매끈한 것에서 바리새인들의 노력과 정성이 지극했음을 알 수 있다.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세리, 창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양지차의 훌륭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율법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께 더 성실하게 나가고자 했던 바리새인의 마음에도 얼마나 어둡고 뿌리 깊은 죄가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 밝히 보여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이들이 어떻게 이런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제껏 바르게 살아 왔다

16) [요한복음 5:41-44]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17) [마태복음 23:25-28] 25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27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다.

고 견고하게 쌓아온 자기우상, 자기의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혔을 때 자기라는 견고한 성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려고 한다.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바위가 되어,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의 빛으로 밝히 드러내신다.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것은 배은망덕한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의로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이 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였다. 이로서 우리 안에 얼마나 어두운 죄가 있는지 알게 된다. 자기 의를 세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커서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려는 교만과 증오로 드러난다.

나 자신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용서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 접붙어져 있지 않으면, 자신을 적나라하게 파고 들어 고발당하는 상황-겉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지적당할 때, 상대를 죽이려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 더구나 그 상대가 이사야 53:2이하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는 보잘 것 없는 낮은 자일 때 자신의 판단과 증오는 얼마나 합리화되는가?

<그리스도께서 항상 원하시는 것은, 넘어져 절망할 때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리는 진정한 의미로 일어서게 하기 위함이다. 자신에 대한 부서짐,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걸려 넘어지게 할 때조차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저 구하는 것만으로,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계속 해서 나아갈 수 있다.> (생명수 잡지(いのちの水¹⁸⁾) 2018년 9월호, 걸려 넘어지는 것과 일으키는 것 중에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과 존재의 부딪힘은, 실제 마음이 가난한 자, 약한 자, 마음이 부서진 자로서 자신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슬프고 비참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 돌이켜 다시 일어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고와 의로 쌓았던 자기라는 성이 견고해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천국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18) 요시무라(吉村 孝雄) 선생이 도쿠시마(徳島)에서 도쿠시마성서그리스도집회(徳島聖書キリスト集会)를 하시며 매월 내는 무교회 신앙잡지. 1949년 6월 요코하마에서 도쿠시마무교회주의성경연구회로 시작되었으며, 1968년에 요시무라 타카오(1945~)씨가 가세해 그 후 고령이 된 사토모를 대신해 집회를 주관함.

2. 죄 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 -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언제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다.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인간적으로 비교한다면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결격사유가 많고 나아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을 본다면 만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아니면 안 된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다는 실감도 확실해진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요한복음 14:6)”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다.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다.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늘나라의 것들이 주어진다.

나라는 사람은 죄 된 그대로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시는가? 죄 많고 추한 나를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나 자신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늘 자기영광 자기우상의 죄가 빈틈을 노리고 나를 덮친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나는 왜 구원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변하지 못하는가? 기도도 형식적이 되고, 나의 죄에 대해서도 무뎌지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힘에 대해서도 흐릿해진 상태로 살며,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¹⁹⁾’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충실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은 있지만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낙담하는 가운데, 모호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믿음에 대해 그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실감하게 된다.

작은 죄에도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는 괴로움 가운데,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에 관한 몇몇 글을 나누고 싶다.

‘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의’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성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사용한다. 인간이 해야 하는, 가져야 하는 바른 모습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바탕에 있다고 한다.

인간이 가져야 하는 바른 모습, 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던 이방인에게, 의가 믿음으로 주어진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통해 얻으려 했던 의-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만 믿음으로 주어진다.

19) 로마서 12:1

로마서 10장 3-4절²⁰⁾에 이스라엘의 불신에 관해 말한다.

<자신의 분투와 노력으로 율법의 의를 지켜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거부한다. 보라, 믿음의 길이 얼마나 간단한지를.²¹⁾>

<그들은 신앙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에 의하여 의를 추구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다. 유대인은 믿어야 할 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하고,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은 뜻밖에도 의를 얻었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다(요한복음 6장 29절²²⁾) 의인은 의를 잃어버리고 죄인이 도리어 의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은 아프게 회개하는 마음이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어버렸고 도리어 이방인이 앞장섰다.²³⁾> (우찌무라 간조, 로마서 연구 하권, 141, 145쪽)

<로마서 9장 30~33절²⁴⁾에서 주 자신이 넘어지는 돌, 이스라엘과 유다를 방해하는 바위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거라고 하신다. 예수님이 오히려 방해하는 돌이 된다고 한다. 하나님이 바른 길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걸려 넘어지는 돌을 타고 넘을 수 있다. 자신이라는 것이 우선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듯이, 근원이 되는 돌인 예수님께 부딪혀 나쁜 방향으로 나간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사야서에서도 말하듯이²⁵⁾ 근원이 되는 돌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은 절망, 실망하지 않는다. 행위에 의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바른 관계, 바른 모습이 되려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질 뿐이다.

누구라도 양심에 따라 바른 행동을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려고 해도 결코 할 수 없다. 걸려 넘어질 뿐이다. 누구도 참된 바른 행위를 할 수 없다.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도쿠시마성서그리스도집회(徳島聖書キリスト集会) 로마서강의(ローマ書講話), 9章30節~10章4節 중에서)

20) [로마서 10:3-4] 3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21) 우찌무라 간조, 로마서 연구 하권 141쪽

22) [요한복음 6:28-29] 28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29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23) 우찌무라 간조, 로마서 연구 하권 144-145쪽

24) [로마서 9:32-33] 32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 기록된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8:14-15] 14 나는 성소와 같을 것이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덫이 될 것이다. 15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러질 것이요 덫에 걸릴 것이다.

25) [이사야서 28:16]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놓아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놀라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창조주이신 무한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어떻게 인간이 제대로 알 수 있는가? 그러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가능한데 바로 믿음을 통해서다.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한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물었다.²⁶⁾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수난을 예고하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들었다.²⁷⁾ 사람의 인식이 창조주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으니 어찌면 당연하다. 그러나 그 큰 간극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이 있다.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알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때에만 하늘나라의 것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보면 구원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지 않는 자신 때문에 실망되고 낙심되고 슬펐다. 그러나 자신의 힘에 의지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지 않으려는 자에게 주시는 채찍으로의 괴로움이었던 것 같다. 노력으로, 자신에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은 번번이 실망,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이런 넘어짐 가운데 더욱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게 된다. 완악한 자신이 부서져서 마음이 가난하게 될 때라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좋은 것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주어짐을 실감하게 된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로 받는 것이 내 것이 아님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프게 뉘우치는 마음을 불쌍히 보셔서 그 사람에게 의를 주신다. 자기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좋은 것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의롭게 되지 않고는 심령의 공허를 채울 수 없어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주시어 그를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에 의한 의다. 하나님의 의 속에 자기를 던져 넣어 그 의를 흠뻑 받는 것처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 (우찌무라 간조, 로마서 연구 하권-201쪽)

3. 그리스도의 자녀에 합당한 의로운 삶에 대해

이상이나 진리를 지향해서 살아도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의 죄는 짓지 않는가? 넘어지는 돌, 거치는 바위로서 예수님께 부딪혀 자신의 죄와 실체가 밝히 드러나는 것은 심판인 동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늘나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 없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시도가 있다. 그 끝은 사람

26) 마태복음 11장 2-6절, 메시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같은 뜻의 그리스어.

27) 마태복음 16장 21-23절

에 대한 실망과 증오, 환멸이고,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으로 철저한 실패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히려 그 자리가, 죄인인 자신을 알게 되어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다.

어려움이 없을 때 타락해 간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나라가 번성했을 때 타락해갔던 일이 각 개인에게도 생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평소와 같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도,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가 많다.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 인간적인 즐거움, 오락거리로 시간을 보내며, 편하지만 죽은 상태와 같다.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시므로 죄를 범해도 괜찮은가?²⁸⁾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 나는 죄의 용서를 당연하게 값싸게 여기며, 그리스도께 기도로 간구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런 계속되는 넘어짐 가운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²⁹⁾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끊어질 듯 이어진 이 작은 믿음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³⁰⁾

또한 어려움, 혼란과 두려움을 지나며 믿음의 힘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간절한 기도로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 위로해 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해 주신다. 그 혼란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주신다.³¹⁾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뒤라도 결코 완전한 성결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파란충첩(일의 진행에 있어서 온갖 변화와 난관이 많음)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비교적 깨끗하기도 하지만, 죄에 빠져 슬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번 유혹을 이기고 기쁨이 넘치지만, 즉시 또 유혹에 넘어가 깊은 비탄과 무거운 우울에 잠기는 수도 있다. 죄를 범하고 나서 몹시 뉘우친다. 그러나 뉘우친 죄를 또다시 짓게 된다. 신앙생활에서 이상과 실제의 거리는 천리만리다. 이것은 기독교신자만이 갖는 고민이다. 이 때문에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져서 크게 실망하여 마침내 신앙을 버리는 자도 결코 적지 않다. 어떤 사람은 회개한 후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우리의 실제 경험과 상반된다.

28) [로마서 6:15-16] 15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6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29) [누가복음 17:5-6] 5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자 6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뿔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30) [누가복음 22:31-32] 31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밭 까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32 그러나 네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31) [로마서 5:2-5] 2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3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5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신앙에 들어간 후에도 항상 죄를 범할 수 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는 일이 아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는 일이다. 이 신앙 때문에 사람은 ‘항상 의롭다 함을 얻으면서’ 산다. 사람은 항상 죄를 범하면서 항상 용서받으면서 사는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 로마서 연구 상권 219쪽)

‘신앙+알파’의 타락을 걱정하지만, 반면 신앙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현실의 여러 문제는 인간의 약함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기독교는 괜찮은가?

[로마서 12:1-2]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러야할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태복음 7:21] 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모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다.

[요한일서 2:15-17]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다. 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남느니라.

<이 세상을 본받는 곳에는 기독교 도덕이 없다. 기독교 도덕은 어디까지나 비현세적이다. 기독교회는 자칫하면 이 세상을 본받기 쉽다. 그 때문에 타락하기 쉽다. 그러나 참 교회는 군사적인 교회다. 곧 이 세상과 싸우는 교회다. 이 세상과의 싸움을 중지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으면 교회는 생명을 잃고 즉시 무력하게 되어 타락한다.> (우찌무라 간조, 로마서 연구 하권 176쪽)

김교신 선생님의 대해 김건우³²⁾씨가 적은 글을 보면, 김교신 선생님을 비롯한 무교회주의 선생님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로 살았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선명하다.

<진리를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나? 성경을 보면 된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다. 성경대로 믿음을

32) 김건우(대전대, 한국지성사 연구) : ‘주간동아’의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20회 연재를 묶어 책으로 냈. [11]김교신의 ‘성서조선’과 민족운동, [12]동양의 덴마크 건설 꿈꾼 류달영, [14]국가주의에 맞선 류달영과 함석헌이 있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므로 신앙은 생활자체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김교신의 철두철미한 생각이었다. 믿음이란 생활을 빼고는 말할 수 없고 유지할 수 없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생하는 사람은 앞으로 신앙이라는 말을 올리지 말라고 쓴 글이 있다.

일요일 예배, 기도와 찬송으로 신앙이 되지 않으므로, 성경책을 보고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나를 매순간 집중한다. 김교신이 ‘나는 지금 내가 겨누고 있는 이 탄환이 맞을까, 안 맞을까에 온 심신을 집중한다’고, 정신이 새파랗다.

어떤 의미에는 인간이 만든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다. 안주하고, 다들 좋다고 하니 그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이 기준에서는 없다. 김교신의 글을 보면 한자도 많고 읽기 어렵다. 김교신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정신을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의 정신은 시퍼렇다. 김교신 선생님의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에 시퍼런 칼을 친다. 거짓말하다 들통나면 정말 큰일 났다.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고자 조선 노동자 징용 온 사람(5000명)들을 위한 복지를 하다가 발진티부스에 걸렸다. 자신이 한걸음이라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고자 했고, 그게 어떤 말들보다 무교회주의자의 본령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 다수파는 될 수 없지만 한국 기독교를 이야기 할 때 무교회주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김건우(대전대, 한국지성사 연구, ‘한국 무교회주의 지성사의 몇 가지 쟁점들’(2016.8.25.) 강의 중 일부 녹취>

무교회주의 선생님들이 사시던 시대와 다른 형태로, 인간의 죄에서 비롯한 여러 문제가 현재에도 여전히 있다.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돈이 우상인 자본주의, 풍족함과 안락함,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술, 먹고 마시는 본능 충족으로 살만하다고 느끼면서 세상 풍조를 본받으며 생명을 잃고 무력하게 되어 타락해 가는 게 아닌가 두렵다.

학생들과 진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려는³³⁾ 이상을 가진 젊은이는 극히 보기 힘들다.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거기서 인생의 방향키를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된다.

33) [마태복음 6:31-33] 31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함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 탄생 그 후

김 철 응

*성경말씀 : 누가복음 2:21-24.

저는 <신앙의 마중물> 제2권1호(2023년 1,2월호)의 권두문에서 누가복음 2:1-20절에 의해서 예수 탄생의 실상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준비하면서 예수 탄생에 얽힌 많은 오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에 대해서 뒷말이 많을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예수의 베들레헴 탄생과 관련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당시 로마황제였던 아구스도가 로마제국 사람들에게 모두 다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올리기 위해 다윗의 고장인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가지 않고, 호주만 가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호적을 올리기 위해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다면, 해산일이 다가온 무거운 몸의 마리아는 그 멀고 험한 사막의 길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함께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를 저는 <신앙의 마중물>에서 직선거리 150km, 실제 걸어간 거리를 170~180km라고 하였지만, 더 멀게는 직선 170km, 사마리아를 피해 갈릴리를 돌아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230km로 보기도 합니다. 그 위험하고 먼 거리를 출산을 앞둔 여인에게 가게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판적인 학자는 예수가 실제로는 나사렛에서 낳았는데, 미가서 5:2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 누가를 비롯한 제자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으로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언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부러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더욱 요셉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은 아직도 결혼하기 전(2:5에 의하면 약혼한 상태였음)인 처녀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혼자 남아 출산을 하게 된다면, 이웃들의 비난과 조롱을 견디기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데리고 갔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럴듯한 말이지만,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1-24절은 물론 2:39절까지의 기사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셉은 반드시 마리아와 함께 가야만 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21절의 할례와 22절의 정결예식이 해답이 됩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태어난 지 8일이 되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잉태하기 전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예수가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마리아 혼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결예식은 문제가 다릅니다.

정결예식이란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구약에서의 정결예식은 부정한 종류에 따라 달랐습니다. 성경에는 출산의 정결(레12:2-8), 나병의 정결(레14:32), 월경의 정결(레15:19), 부정한 것을 접촉한 것에 대한 정결(민19장)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의식의 형식보다는 내적인 정결을 더 요구하고 있지요(막7:1-23).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출산의 정결예식입니다.

레위기 12:6에 보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 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라고 되어 있지만, 다시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결예식은 해산한 여인을 위한 속죄 예식으로(12:7) 이 예식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며 아이를 낳은 임산부가 직접 행하는 규례입니다. 이 예식은 제사장에게 가서 행해야 하고 당시의 제사장은 회막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므로 마리아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4절에 보면 마리아는 “산비둘기 한 쌍과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드렸다고 하였으니, 요셉 가족은 빈한하여 최소한의 규례만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도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당시의 요셉의 처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가난한 요셉에게 주어진 임무는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황제의 명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올려야 하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출산을 돕고요, 세 번째는 만약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천사가 이미 예고하였지만) 할례를 행하고, 마지막으로 산모인 마리아의 정결예식을 치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네 가지의 중첩된 일을 주도면밀한 계획과 추진력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합니다. 그 기록이 누가복음 2:21-39절까지입니다. 요셉은 황제의 명을 지켜 호적을 기한 내에 올렸고, 예수는 마리아의 수고와 요셉의 보살핌으로 천사들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생 8일 만에 할례를 받고(21절),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할례 후 33일) 가난한 자로서 최소한의 예물로 정결예식을 치룹니다(24절). 이때 시므온의 축복(2:34)과 선지자 안나의 예수에 대한 예언(2:38)은 덤으로 주어졌지요,

이 기사대로라면 예수는 할례를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받았고, 정결예식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8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원래 살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2:39).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만약 요셉이 혼자서 호적을 올리러 베들레헴에 갔다면, 마리아는 이웃들이 보기에 부정의 씨앗인 사생아를 보호자도 없이 혼자서 낳아야만 했을 것이고, 그 모욕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베들레헴까지의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요셉은 (그 여행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보름은 걸렸을 것입니다) 정결예식을 위해 다시 되짚어 마리아와 갓 태어난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수 백리 길을 다녀와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은 물론 경비도 배가 들었겠지요. 만약 요셉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돈독한 신앙심을 가진 성실한 가장으로서 호적을 올리는 일에서부터 예수의 탄생과 할례,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자의 정결예식까지 어디 한 곳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따르고 지켰습니다.

사실 당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부정한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팔푼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셉은 마리아를 잘 보호하여 예수를 무사히 탄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길러낼 재목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래도 나사렛에서 탄생한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간 것으로 꾸민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조심스럽게 잘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 하지만, 믿음 없는 세상은 어둡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유용한 재목으로 쓰이기를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